

2017 겨울

제17권 4호 통권68호

햇볕

2·28

- 시론 2·28민주운동의 회상과 승계 과제
특집 2017년 2·28민주운동기념사업 시민의식 및 만족도 조사
특별기고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경과보고



사단
법인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www.228.or.kr



경제성장의 백년

글로벌 산업자동화 솔루션 기업 - 삼익THK



격동의 세월을 이겨내고 경제성장이란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 자양분에 삼익THK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이제 반세기를 넘어 희망찬 백년대계를 위해
성실과 노력으로 새 뜻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불타는 열정으로 꿈의 이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 LM Guide



• Ball Screw



• CDM & SDM



• WTR



• LTR



• 다관절 로봇



햇불

2·28

題字 : 蕙汀 柳永喜

2017년 겨울 제17권 4호 통권68호



시론

04 2·28민주 운동의 회상과 승계
과제 / 배한동

2·28특집

11 2017년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시민의식 및 만족도 조사」



특별기고

26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경과보고 / 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위원회

자유기고

30 2·28 대구 민주운동과 대구 정신
/ 이상규

문예광장

38 시·질경이 / 박태진
39 시조·그해 4월 / 김용주
40 수필·엄마의 집 / 임은주
42 제17회 민주운동 글짓기공모
금상 수상작(산문·운문)

인문학 강좌

47 자주, 민주, 창조 의 도시, 대구
/ 이효수
52 Well-Aging과 Well-Dying
/ 이상훈
57 미국의 대통령 선거과정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 윤용희

2·28행사

62 2017 하반기 2·28인문학 강좌 개최
63 2·28차세대 주역 워크숍 개최
64 2·28민주운동 역사문화 RPG
65 2017년도 제5차 이사회 개최
66 범시민위원회 행안부 방문,
청원서·100만인 서명부 전달

◀ 표지: 눈덮인 2·28학생의거기념탑

입회안내

- ※ 2·28민주운동 기념사업을 돕는 여러분의 정성은 2·28정신 계승발전과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 ※ 2·28 회원으로 가입하면 영구히 전산입력 보전됩니다. (학생 1,000원, 개인 10,000원, 단체 100,000원 이상)
입금계좌: 대구은행 505-10-139462-2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 본 법인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61호)

※ 게재된 글은 본 사업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원고를 다음호에 게재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발 행 인 | 노동일 | 편집인 | 김약수 | 인 쇄 | 2017년 12월 27일 | 발 행 | 2017년 12월 27일

| 편집위원 | 김약수, 박명철, 장영향, 이준복, 임병욱, 백재호

| 발 행 처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우 41968 대구광역시 중구 2·28길 9(남산1동,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Tel. (053)257-0228, Fax. (053)254-0228 E-mail: 228demo@hanmail.net Homepage: http://www.228.or.kr

| 인 쇄 처 | 신문사(053)474-9000

※ 본 책자의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228.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제작함.

2·28민주 운동의 회상과 승계 과제



배 한 동
 경북대 명예교수
 전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 협의회 상임회장

1. 중 2생의 대구 2·28 체험

1960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다. 그날 중학교 2학년 학생인 나도 담임 선생님의 지시대로 아무런 불평 없이 학교에 등교하였다. 당시 대구의 시내버스 노선은 일부 구간만 있어 우리는 대부분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이 많았다. 나도 대구 칠성동 셋집에서 대구역까지는 걸어가고 역에서 대봉동 소재 학교까지는 버스를 이용하였다. 버스 안은 항상 학생들로 꽉 차 있었고 여차장의 ‘올 라이’ 하는 신호가 있어야 차가 움직이던 시절이었다. 같은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효성여대 교복 입은 누나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버스는 지금의 중앙로를 거쳐 반월당, 사대부중·고, 경북중·고를 거쳐 미8군 정문 앞의 우리학교에 도착하였다.

당시 자유당 독재 정권은 민주당의 일요일 수성천변 선거유세에 시민들이 참여를 줄이기 위해 학생들을 일요일에 등교시킨 것이다. 당시 행정당국은 공립 고등학생들뿐 아니라 어린 중학생까지 수업도 없이 자습이나 임시시험이라는 명분으로 강제등교를 시킨 것이다. 학교건물 1층 2학년 1반, 우리 교실에서 자습을 하던 반 친구들이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이곳저곳에서 ‘배고파라’ 하는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소리는 곧 이 반 저 반으로 3층까지 퍼져나갔다. 이 소리는 당시 순진한 중학생들의 강제등교에 대한 간접적인 항의의 표시이며, 집에 빨리

보내달라는 일종의 호소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중학생들은 하교가 허락되었다.

나는 당시 외가가 수성방천 가까이 있어 민주당 유세장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선생님을 피해 수성천변 민주당 유세장을 구경 가기로 결심하였다. 당시 수성천변에는 부통령 후보인 민주당 장면 박사의 연설이 예정되었다. 야당 도시 대구의 성난 민심은 구름처럼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그해 2월 25일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유력시되던 민주당의 조병옥 박사가 미국 윌트리드 육군 병원에서 서거하였다. 부통령 후보로 유망한 장면 박사의 연설을 듣기 위해 청중이 수없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내가 수성천변 유세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유명한 박순천 여사의 카랑카랑한 연설이 막 시작되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요’로 시작되는 그의 카랑카랑한 연설은 아직도 귓전에 맴돌고 있다. 가까머리 중학생인 나는 그녀의 자유당 독재 정권을 맹렬히 비판하는 연설을 들으면서 왠지 가슴이 쿵덕거렸다. 나는 2·28 당일 오후 고등학생들이 지금의 경상감영공원 자리인 도청까지 시위를 벌인 것도 모르고 군중 속에서 유명 정치인들의 연설을 들었던 것이다. 이것이 2·28 당일 나의 기억에 남아 있는 소중한 체험이다.

2. 2·28 선봉 이대우형에 대한 추억

2·28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는 더욱 강화되고 부정부패는 곳곳에 만연하였다. 당

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 박사의 급작스러운 서거는 대선 분위기를 더욱 어수선하게 하였다. 당시 민주당의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정치구호는 민심을 더욱 자극하였다. 결국 대구에서 폭발한 학생들의 2·28 의거는 이 나라 학생들의 순수한 민주운동의 금자탑이 되었다. 그 공간에서 경북고 2학년 학생회 부회장 이대우는 2·28의 주도적 인물이 된다.

1960년 2월 28일 당시 경북고 이대우는 학교 운동장에서 2·28 ‘결의문’을 떨리는 음성으로 낭독하였다. 고등학생 대표들이 모여 작성한 그 결의문은 문맥상 순진한 표현이 많지만 학생들의 심금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당시 유행하던 타고르의 시 ‘그 촛불 다시 한 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는 표현도 인용되어 있다. 당시 경북고 학생들은 인접 부속고, 대구상고, 대구고, 경북여고 학생들과 합세하여 2·28학생시위를 주도하였다. 세월은 빨라 당시의 주역들이 모두 70대 중반을 넘었다.

나는 당시에 3년 선배인 이대우, 이름은 익히 들었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나는 30대 초반 정치학회에서 우연히 이대우형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유명했던 대우형의 첫 인상은 키는 작지만 다부지고 강단 있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정치학이라는 같은 학문을 하면서 지적 교분을 나누고 동향이라 60년대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며 급속히 가까워졌다. 후일, 형은 부산대학 교수가 되고 나도 경북대 교수가 되어 학회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70·80년대의 암울한 시대,

민주화 공간에서 수 없이 만나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기도 하였다.

대우형은 본인의 정치학이란 전공 외 문학에도 상당한 소양을 가졌다. 그의 문학에 대한 열정과 소양은 그의 유고 곳곳에 남아 있다. 그는 어학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어 술이 취하면 중국어로 곧잘 이야기하길 좋아했다. 노래 ‘내일은 해가 뜬다.’는 그의 십팔번이다. 그는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밑천인데 제제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짝 펴라’며 술자리 분위기를 돋우기도 하였다. 부산에 살면서도 그는 자주 서울을 내왕하고 고향 대구에 와서는 지인과 후배들을 자주 만났다. 그는 우리 집까지 밤늦게 어깨동무하고 함께 들어가 폭음을 한 적도 있었다. 형은 대구에 오면 친구나 동기보다도 후배인 우리를 먼저 찾았다. 대구에 올 때마다 L, K, C등과 나를 동촌의 단골집에 불렀다. 그는 천하가 아는 마당밭이라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고교 시절 2·28의 못다 이룬 청운의 꿈을 부산 금정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당시 YS의 공천으로 부산 14개 지역구를 휩쓴 선거에서 그는 아쉽게 근소한 표차로 낙선하였다. 그는 후일 YS가 다른 부산지역은 직접 유세를 다녀갔지만 그곳 금정구만은 빠트렸다고 아쉬움을 표한 적이 있다. YS가 세상을 떠나 그 이유는 아직도 알 길이 없다. 선거 당일 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의 참관인마저 사라졌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가 교수직을 접고 부산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그의 인생행로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 후 그는 교수직만은 성실히 수

행하였다. 나는 당시 부산대 논문 심사위원으로 초청되어 학문적 교분을 나누는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후일, 그는 부산대 교수협회의장에 당선되어 대학 민주화에도 대단한 열정을 쏟았다.

그는 애석하게도 정년 후 얼마 안 되어 몹쓸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형이 작고하기 전 재생불량성 혈액병이라면서 나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다. 남의 이야기하듯 그의 음성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고 또렷하였다. 내가 주변의 수혈 증서를 구해가기로 했으나 내가 도착하기 전 그는 유명을 달리하였다. 그의 장례식장인 서울 삼성병원에는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대구시장을 역임했던 경북고 동기도 상가에서 뵈었는데 그도 세상을 떠났으니 새삼 인생무상일 뿐이다. 대우형은 못다 이룬 그의 포부를 친구와 술로 달래며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다 세상을 떠나셨다. 그는 세상을 풍자하면서도 주변 후배들을 잘 다독이며 격려하였다. 그의 체구는 작지만 ‘그의 큰 품모’는 그대로 나의 가슴에 남아 있다. 오늘따라 형이 몹시 그립다. 내년 봄 상경 길에 그가 잠든 수유리 4·19공원묘지라도 찾을 생각이다.

3. 2·28 의거를 다시 반추 해본다.

1960년 대구의 2·28이 벌써 세월이 흘러 반세기가 넘고 우리의 기억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당시를 함께 살았던 초로인생이 2·28의 정치사적 의의를 반추(反芻)해보기로 한다. 대구 2·28은 자유당 독재 권력이 야당인

민주당의 수성천변의 연설회를 저지하기 위한 일요일 강제등교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교육당국은 사립은 제외하고 대구의 공립 중·고등학생들을 일요일에 강제 등교시켰다. 지금 생각하면 치졸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대구 2·28 학생시위의 발단이고 종국적으로 4·19학생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당시 자유당 독재 권력은 부통령 이기붕의 당선을 위하여 조직적 부정선거를 획책하였다. 선거의 패배를 예감한 자유당 정권은 어린학생들마저 정치도구로 이용하려고 강제 등교를 시킨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간파한 당시의 순수한 학생들은 불의에 몸을 떨면서 교문을 뛰쳐나갔던 것이다. 그날 학교에 강제등교 된 학생들은 자유당의 불의와 부정을 규탄하는 2·28시위에 참여했던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2·28 일요일강제등교가 오히려 학생들의 시위를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역사의 흐름은 이처럼 원래 권력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1960년 대구의 2·28학생의거는 결코 학생들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당시 대구는 지금과 달리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유명한 야도(野都)였다. 당시 자유당 압제 하에서도 대구 시민들은 호남출신 민주당 조재천 후보를 무난히 당선시켰다, 당시 대구시민들은 자유당 이승만보다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를 지지하였다.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강화도 출신의 진보당 조봉암 후보는 무려 72.3%의 지지를 얻어 자유당 이승만 후보를 눌렀다. 대구는 일제 시 국채보상운동 등으로 민족적 기개가

높았고, 해방 후에는 진보적 반정부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당시 대구는 교원노조 운동도 활발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중학생인 우리도 교원 노조운동에 앞장선 우리의 역사 선생님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당시의 대구 매일신문은 야당지로서 전국적으로 지가를 높이며 대구의 야당 여론을 선도하였다. 이러한 야도 대구의 민심이 2·28 학생의거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1960년 2월 28일 당시 학생들의 갑작스러운 의거를 목도한 시민들은 처음에는 몹시 놀란 듯하였다. 대구의 고등학생 800여 명은 반월당을 돌아 중앙통을 지나 경상북도 도청(현 경상감영 공원)까지 진출했다가 자유당 당사를 돌아 대구시청까지 항의시위를 계속 하였다. 당시 야당도시 대구의 민심은 결국 학생들의 거사를 지지하고 환영하였다. 연도에서는 학생들의 항의시위에 박수를 보내는 시민까지 등장하였다. 2·28 당일 경북고 이대우, 대구고 장주호 등 4명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그날 저녁 대구의 야당지 매일신문은 대구 학생의거를 상세히 보도하였다.

자유당의 압제에 저항한 고등학생의 2·28학생의거의 순수한 불씨는 결국 4·19학생혁명으로 승화된 것이다. 당시 86세 이승만 대통령의 노욕은 개헌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다가 부정선거를 통해 후계구도를 세우려고 하였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4·19학생혁명 이후 하야성명과 함께 하와이로 망명하고 자유당 독재 정권은 붕괴되고 말았다. 역사에서 흔히 보듯 민중의 저항은

하루아침에 결집되지도 폭발하지도 않고 누적적 분노가 화산과 같은 법이다. 결국 2·28은 그 화산의 불길이 정의감에 불타는 고등학생들에게 옮겨 붙었던 결과이다.

해방 후 우리의 정치사는 통치자의 과욕이 절대 권력화 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통치자의 권력이 민초들을 무시하거나 탄압할 때 정치변혁은 필연적으로 초래됨을 역사는 잘 증명하고 있다. 최고 통치자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권력의 횡포를 막지 못할 때 퇴행적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무모한 독재권력,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재, 전두환 신군부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횡령,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엄청난 민중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는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력 앞에 겸손하지 않을 때 언제나 준엄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4. 대구 2·28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다.

대구의 1960년 2·28학생의거는 해방 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이다. 2·28은 이 나라 학생들의 민족적 의기(義氣)와 애국심의 발로였으며 해방 후 최초의 순수한 학생 주도의 민주화운동이다. 당시만 해도 자유당의 폭정 하에서 집단시위는 엄두도 못 냈던 시절, 대구의 고등학생들의 용기 있는 항거는 더욱 빛날 수밖에 없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대구의 2·28의거는 1919년의 3·1운동, 1926년의 6·10만세 사건, 1929년 11월 3

일 광주학생운동에 맥이 닿는 학생운동의 금자탑이다.

김대중 대통령까지 2000년 2월 28일, 2·28 4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여하여 2·28을 한국 민주화운동의 효시라고 규정하였다.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2·28에는 기념메시지를 보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구의 2·28의 역사적 의의를 간취하고 지난 대선 공식 출범식을 비 내리는 새벽 대구 2·28 공원에서 출범식을 선포하였다. 이처럼 2·28민주운동은 대구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민주 민권운동이며 한국 정치사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할 거사이다. 대구의 2·2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것은 당연한 역사의 당위이다. 그간 국가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간 2·28민주운동은 민주화기념 사업법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명문화되었다. 이제 대구 2·28은 국가기념일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 조례로 규정된 2·28기념사업은 그 뜻을 기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 대구 2·2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에 이른 것은 2·28기념사업회의 그간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다. 2016년 5월 26일, 기념사업회는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범시·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까지 전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2·28국가기념일 지정 청원서에는 공동서명인 1,244,649명의 뜻이 잘 모아져 있다.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2·28국가기념일 지정 촉구결의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무척 경사스러운 일이다.

1973년 3월 30일 제정· 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142호)에 의해 2·28 국가기념일 지정은 법령이 아닌 규정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이 선언만 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서인 국가보훈처와의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설정하였다. 이제 대구 2·28이 정식 국가기념일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마산 3·15의거와 광주5·18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대구 2·28이 늦게나마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며 우리 모두가 환영할 만한 일이다.

5. 2·28 정신의 승계 과제

현재 우리나라는 47개의 국가기념일이 지정되어 각 책임 부처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대구 2·28의 국가기념일지정을 기회로 우리지역민들도 2·28정신을 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 2·28기념사업회도 2·28의 정신을 승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2·28 정신은 어떤 방향으로 승계해야 할 것인가. 우선 2·28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전제를 설정해 보기로 한다.

첫째, 2·28은 당시 독재에 항거한 순수한 학생들의 민권 민주운동이다. 이 지역민들은 2·28의 민주항쟁정신이 대구의 특정 정당

일당 독점 정치구도와 얼마나 합치되는지를 냉철히 살펴보아야 한다. 대구는 지난 총선에서 김부겸 의원 한 명 외에는 근 30년 동안 야당의원 한 명 없는 정치적 일당 독점구도가 형성되었다. 아직도 민주당은 구청장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민주정치의 다양성이 완전히 거부된 독점구도는 2·28정신과도 합치되지 않는다. 이러한 일당 독점구도가 과연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도 냉철히 자성하여야 한다. 대구 2·28정신이 자유당 일당 독주에 대한 비판과 항거에서 출발했다면 대구의 정치문화는 이제 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28정신은 민주 개혁정신과 조화를 이루고 승화될 때 그 가치를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28기념사업회도 이러한 운동 방향과 사업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2·28정신은 지역감정에 기반을 둔 수구적인 TK 정서와도 결코 합치되지 않을 것이다. 2·28민주운동은 지역이기주의나 지역감정과는 달리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려 했던 운동이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영호남의 지역감정은 급격히 조장되었고, 영호남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구도는 아직도 존치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여 영호남의 화해와 화합, 번영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2·28민주정신이다. 영호남이 상호 책임 전가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 다행히 대구시와 광주시가 지역간의 화합을 위해 여러 차례 상호 방문행사까지 추진했다는 소식도 접하고 있다. 이도 긍정

적으로 평가할 만 한 일이지만 고질적인 지역감정이 단체장의 교류 행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2·28과 5·18은 반독재 개혁정신, 민권 민주운동에서 그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영호남이 가치나 정서면에서 합치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상호 존중할 때 지역간의 화해는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의 2·28기념사업회와 광주의 5·18기념재단은 순수 민간단체 교류행사를 적극 지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2·28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를 소망한다. 여기에는 역사학자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각 분야 전문가의 참여하여 2·28 정신의 승계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28정신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실천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2·28과 5·18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영호남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나 학술회의를 교체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광주에서 대구2·28정신을 기리기 위한 세미나를 대구에서 5·18항쟁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길일 것이다.

대구 2·28의거는 이제 대구만의 자량이 아니고 전 국민의 자량이 되어야 한다. 대구 2·28정신은 한국 민주 민권운동의 굳건한 토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는 2·28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정치적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역동성 있는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는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만은 아니다.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고 정치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도시로 태어날 때 대구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역사뿐 아니라 2·28민주운동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커다란 교훈이다. ▮

2017년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시민의식 및 만족도 조사」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2·28기념사업회는 여론 조사기관(리서치 코리아)에 의뢰하여 지역,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표본할당 방식으로 대구시민 528명, 각종 행사 참가자 62명을 대상으로 2·28에 대한 시민의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I 조사 개요

1. 조사 추진 개요

- 주관 기관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수행 기관 : ㈜리서치코리아
- 조사 방법 : 1) 대구시민 : 일대일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2) 회 원 : 전화면접조사(Telephone Interview) 실시함
- 조사 기간 : 2017년 11월 27일 ~ 2017년 12월 4일

2. 조사 목적

- 대구시민 및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각종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2·28민주운동에 대한 시민의식, 행사 만족도 등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향후 진행해야 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3. 조사 대상 및 방법

- 대구시민 만 15세 이상 528명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각종 행사 참여자 62명
- 지역,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표본할당을 엄격히 준수하여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4. 조사 내용

-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가 실시됨.

< 조사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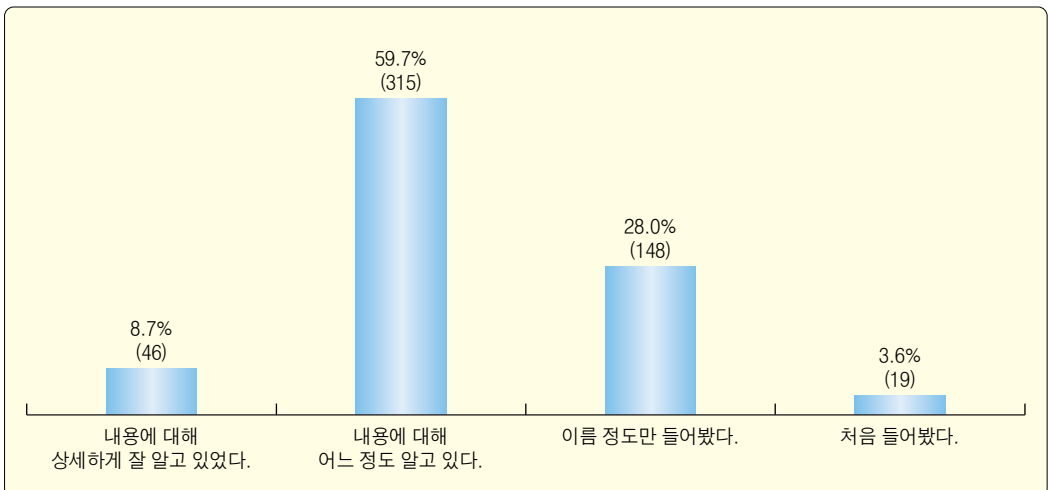
구분	주요 조사 내용
2·28민주운동 인식 및 개선방안	- 2·28민주운동 인지도 - 2·28민주운동 관심도/민주화 기여 정도/민주주의 상징 정도 - 2·28민주운동 들어본 경험/인지 경로 - 2·28민주운동 직접 찾아본 경험 - 2·28민주운동 홍보 및 관심도 높이는 방법
2·28민주운동 관련 사업 만족도 평가 및 개선 방안	- 참여한 2·28행사 - 참여한 행사의 전반적인 만족도 - 참여한 행사에 다시 참여할 의향 등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기관 평가 및 개선 방안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인지도/호감도 - 2·28민주운동에 대한 기념 및 정신 계승 적절성 - 2·28민주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 등
응답자 인적사항	-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II 2·28민주운동 인식 및 개선방안

1. 2·28민주운동 인지도

- 2·28민주운동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8.7%,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59.7%, 이름 정도만 들어봤다가 28.0%로 나타나 전체 96.4%가 2·28민주운동에 대해 최소한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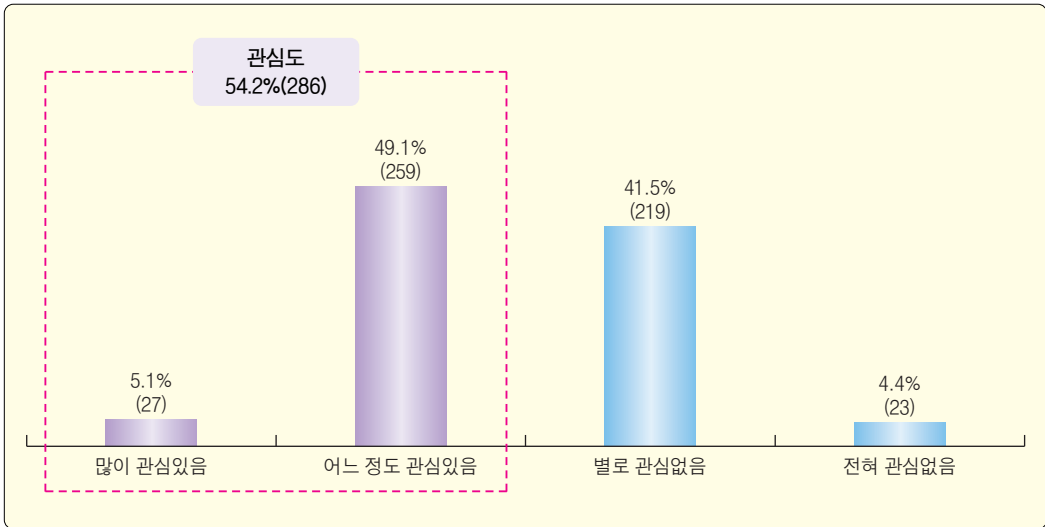
■ 2·28민주운동 인지도 (단위 : %, 응답 수)



2. 2·28민주운동 관심도

- 2·28민주운동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매우 관심있다가 5.1%, 어느 정도 관심있다가 49.1%로 전체의 54.2%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외 별로 관심없다가 41.5%, 전혀 관심없다는 4.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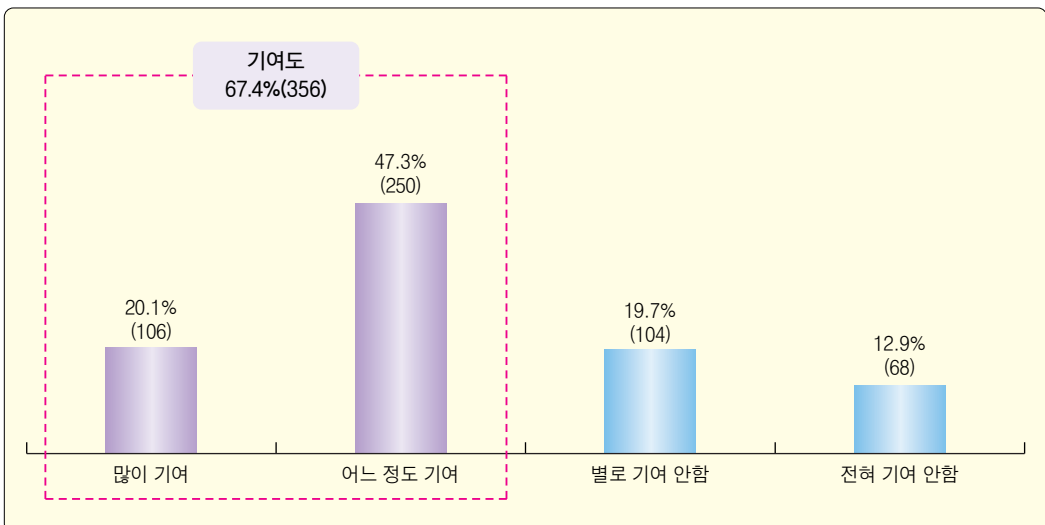
■ 2·28민주운동 관심도 (단위 : %, 응답 수)



3. 2·28민주운동 민주화 기여 정도

- 2·28민주운동 민주화 기여정도를 살펴보면, 많이 기여했다가 20.1%, 어느 정도 기여했다가 47.3%로 전체의 67.4%가 2·28민주운동의 민주화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이 외 별로 기여 안했다가 19.7%이며, 전혀 기여 안했다는 12.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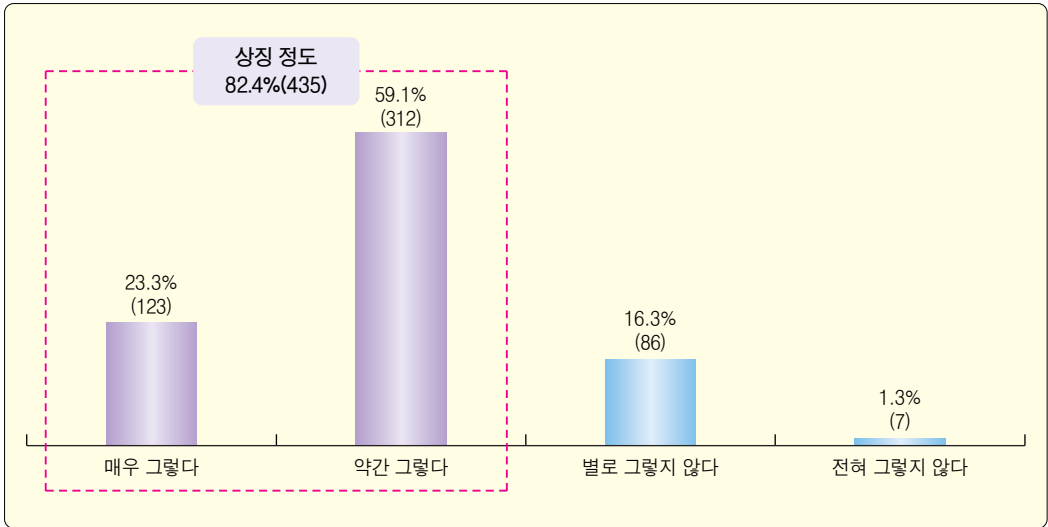
■ 2·28민주운동 민주화 기여 정도 (단위 : %, 응답 수)



4. 2·28민주운동 민주주의 상징 정도

- 2·28민주운동 민주주의 상징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가 23.3%, 약간 그렇다 59.1%로 전체의 82.4%가 2·28민주운동의 민주주의 상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외 별로 그렇지 않다 16.3%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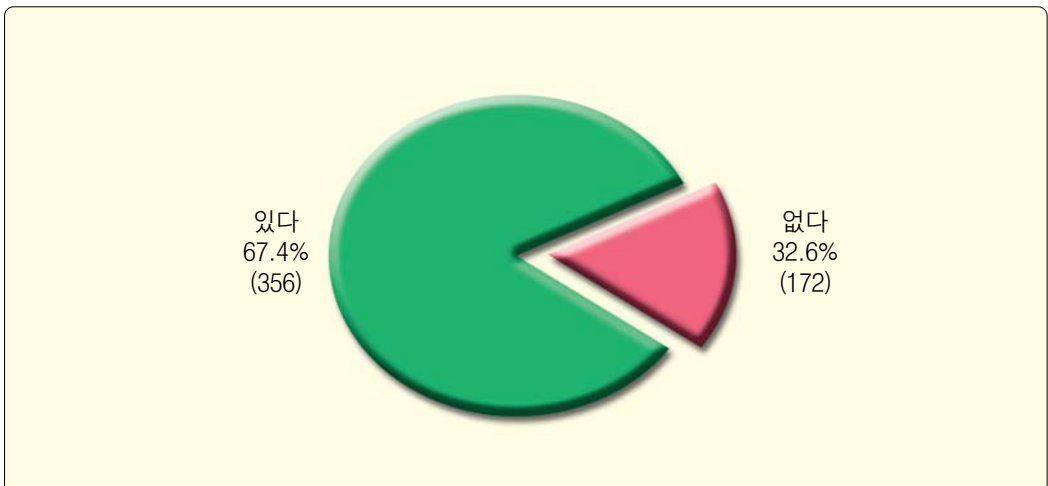
■ 2·28민주운동 민주주의 상징 정도 (단위 : %, 응답 수)



5. 2·28민주운동 들어본 경험

- 최근 1년간 2·28민주운동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7.4%로 나타남.

■ 2·28민주운동 들어본 경험 (단위 : %, 응답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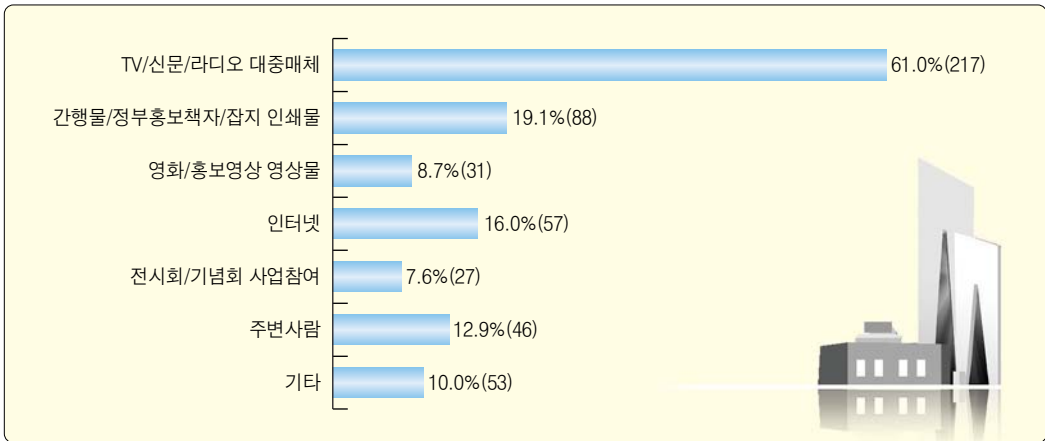


5-1. 2·28민주운동 인지경로

- 2·28민주운동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TV/신문/라디오 대중매체(61.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간행물/정부홍보책자/잡지 인쇄물(19.1%), 인터넷(16.0%), 주변사람(12.9%), 영화/홍보영상 영상물(8.7%), 전시회/기념회 사업참여(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28민주운동 인지경로 (중복응답, 단위 : %, 응답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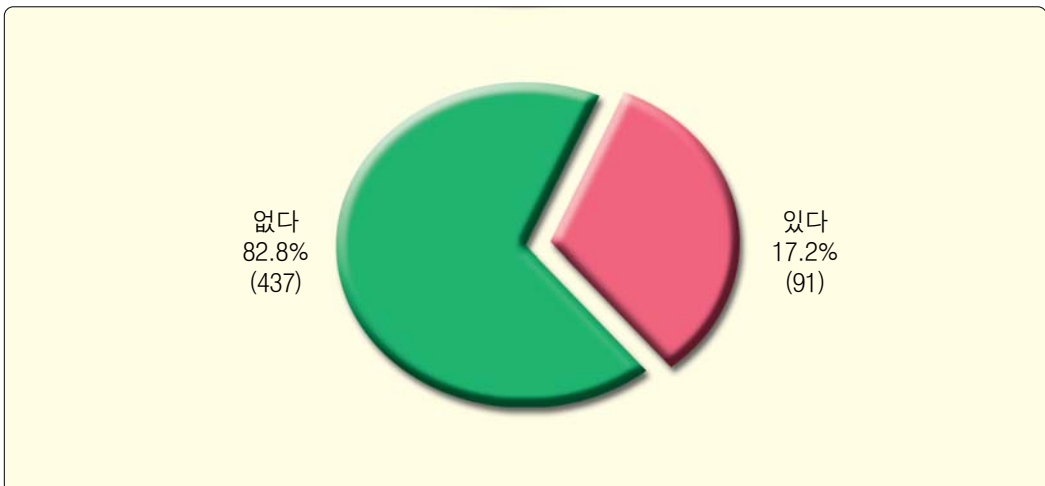
※ 2·28민주 운동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해(n=356)



6. 2·28민주운동 직접 찾아본 경험

- 2·28민주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이나 신문, 잡지, 홍보브로셔 등을 통해 직접 찾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7.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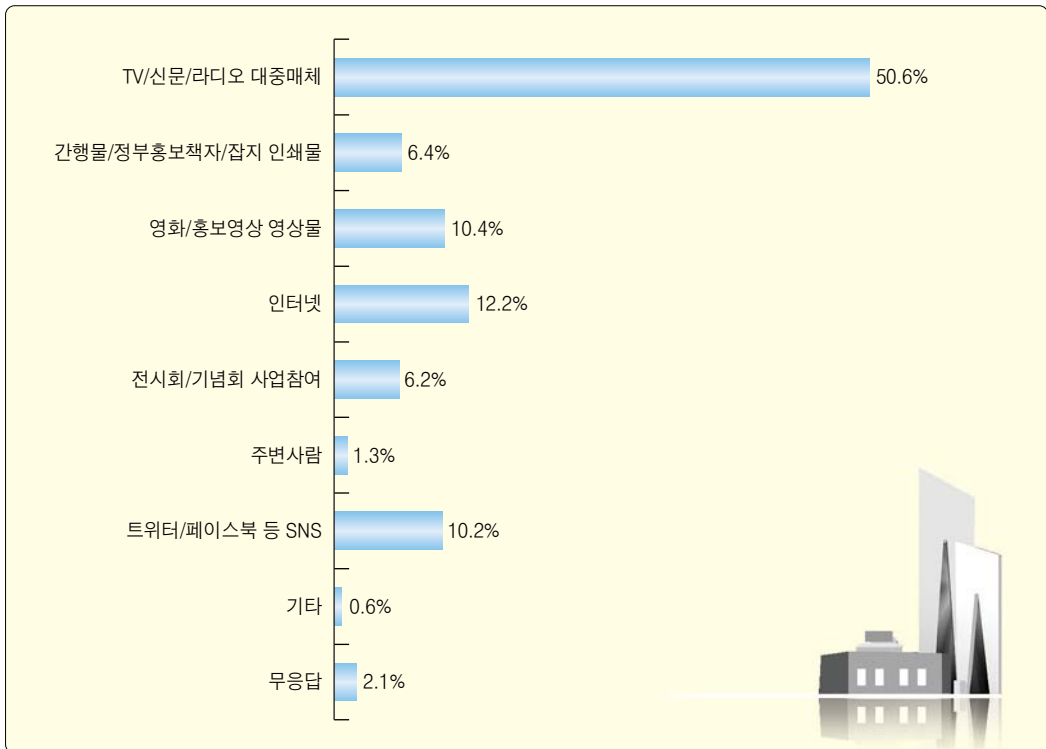
■ 2·28민주운동 직접 찾아본 경험 (단위 : %, 응답 수)



7. 2·28민주운동 홍보 및 관심도를 높이는 방법

- 2·28민주운동에 대한 홍보 및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TV/신문/라디오 대중매체(5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인터넷(12.2%), 영화/홍보영상 영상물(10.4%),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10.2%), 간행물/정부홍보책자/잡지 인쇄물(6.4%), 전시회/기념회 사업참여(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28민주운동 홍보 및 관심도 높이는 방법 (순위별가중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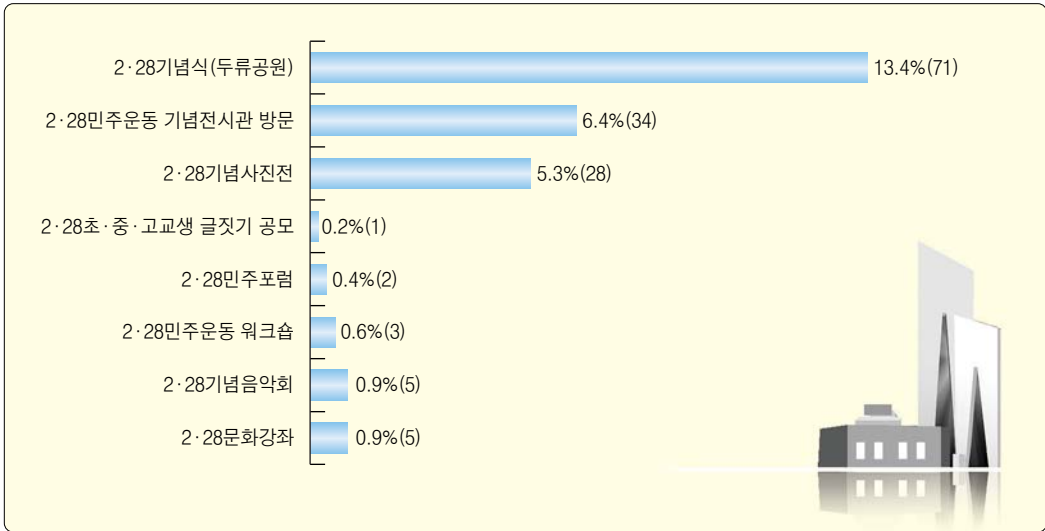


III 2·28민주운동 관련 사업 만족도 평가 및 개선방안

1. 참여한 2·28행사

- 2·28행사에 참여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행사를 살펴본 결과, 2·28기념식(두류공원)이 13.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2·28민주운동기념전시관 방문(6.4%), 2·28기념사진전(5.3%), 2·28기념음악회, 2·28문화강좌(각 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참여한 2·28행사 (중복응답, 단위 : %, 응답 수) ※ 2·28행사 참여자에 한해 (n=104)



2. 2·28행사 참여 만족도 평가

- 최고 4점, 최저 1점으로 평가한 2·28행사 참여 만족도를 살펴보면, ‘참여한 행사의 향후 지속 여부’ 항목이 85.6%로 타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어서 ‘2·28민주운동 정신 발전 및 계승 적절성’, ‘행사의 사전준비 정도’ (각 82.7%), ‘행사의 진행 원활 정도’ (80.8%), 참여자들의 흥미와 관심 유발 정도(73.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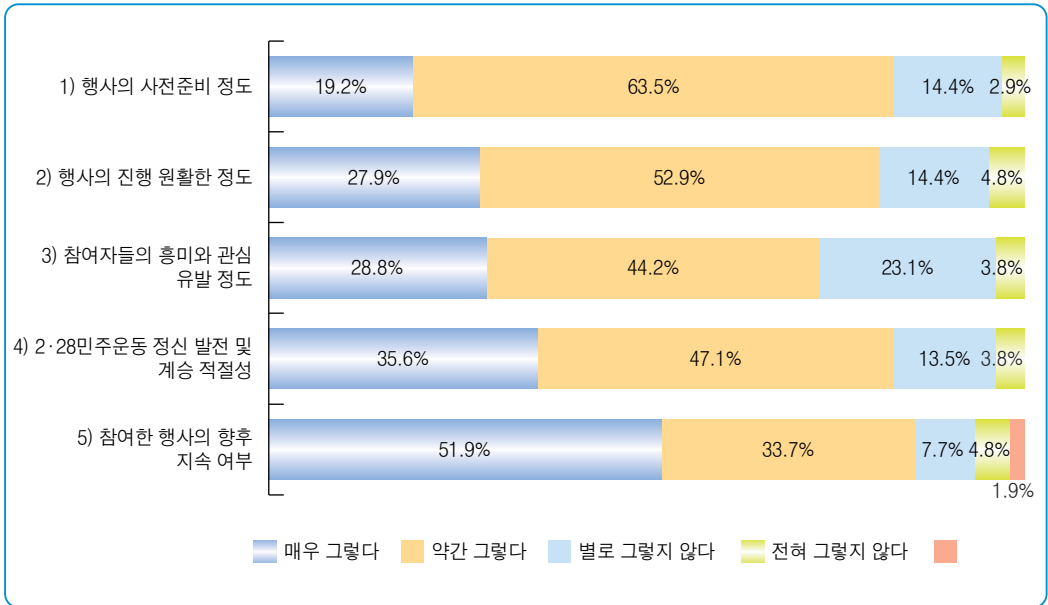
■ 2·28행사 만족도 평가 (단위 : 응답 수, %)

구분	만족도 (%)	2·28행사 만족도 평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 행사의 사전준비 정도	104 82.7%	20 19.2%	66 63.5%	15 14.4%	3 2.9%	
2) 행사의 진행 원활한 정도	104 80.8%	29 27.9%	55 52.9%	15 14.4%	5 4.8%	
3) 참여자들의 흥미와 관심 유발 정도	104 73.0%	30 28.8%	46 44.2%	24 23.1%	4 3.8%	
4) 2·28민주운동 정신 발전 및 계승 적절성	104 82.7%	37 35.6%	49 47.1%	14 13.5%	4 3.8%	
5) 참여한 행사의 향후 지속 여부	104 85.8%	54 51.9%	35 33.7%	8 7.7%	5 4.8%	2 1.9%

※ 만족도 : 매우 그렇다 (%) + 약간 그렇다 (%)

■ 2·28행사 만족도 평가 (단위 : %)

※ 2·28행사 참여자에 한해 (n=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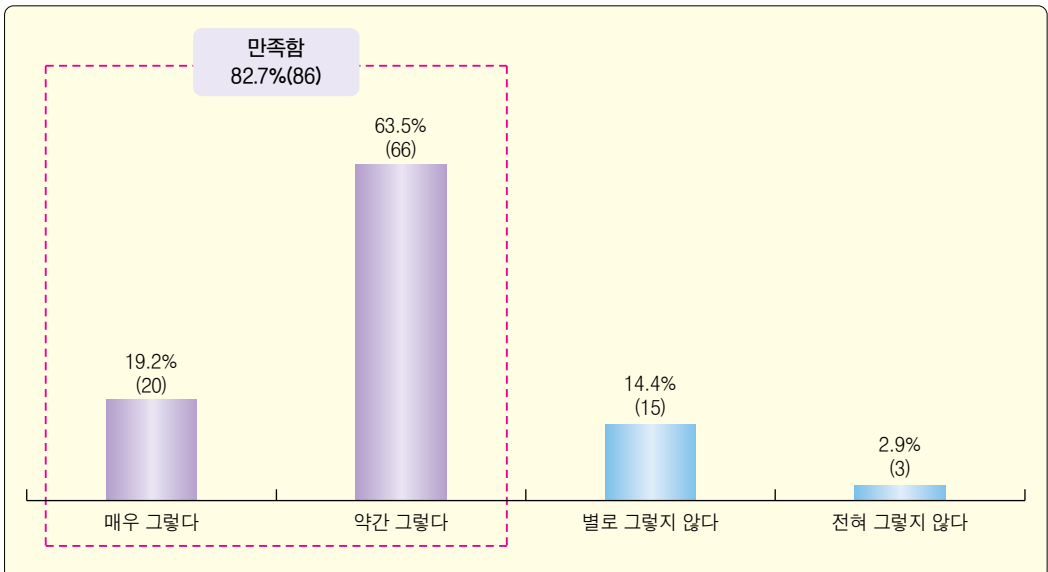


1) 행사 사전준비 정도

- 행사 사전준비 정도를 보면, 매우 그렇다가 19.2%, 약간 그렇다 63.5%로 전체의 82.7%가 행사 사전준비 정도에 만족 하고 있음. 이 외 별로 그렇지 않다가 14.4%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2.9%인 것으로 조사됨.

■ 행사 사전준비 정도 (단위 : %, 응답 수)

※ 2·28행사 참여자에 한해 (n=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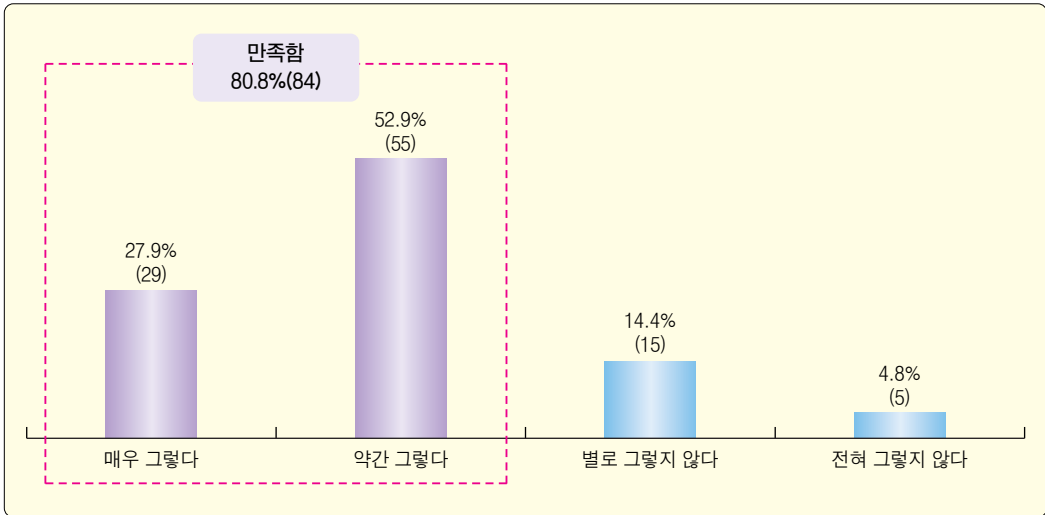


2) 행사의 진행 원활한 정도

- 행사 진행의 원활한 정도를 보면, 매우 그렇다 27.9%, 약간 그렇다 52.9%로 전체의 80.8%가 행사의 진행 원활한 정도에 만족하고 있음. 이 외 별로 그렇지 않다가 14.4%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4.8%인 것으로 조사됨.

■ 행사의 진행 원활한 정도 (단위 : %, 응답 수)

※ 2·28행사 참여자에 한해 (n=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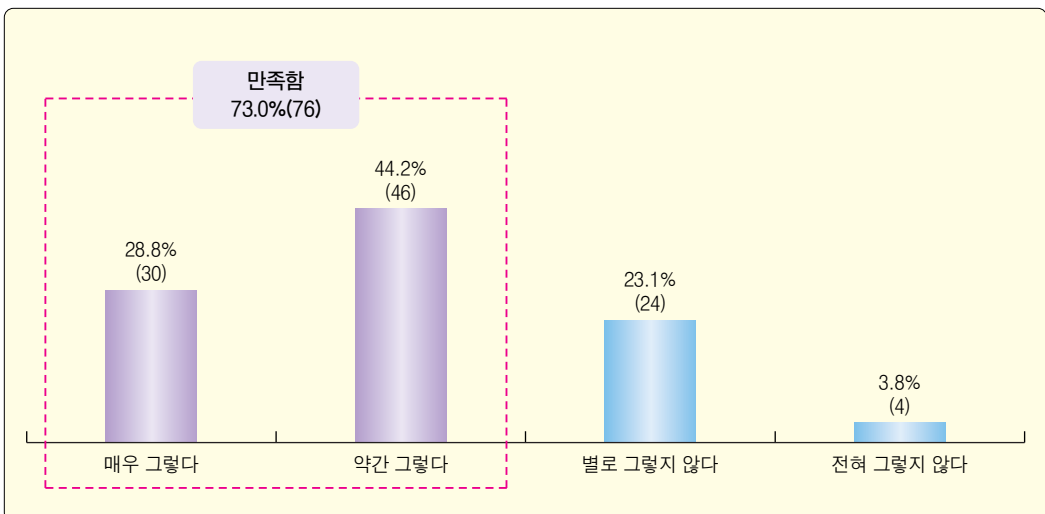


3) 참여자들의 흥미와 관심 유발 정도

- 참여자들의 흥미와 관심 유발 정도를 보면, 매우 그렇다 28.8%, 약간 그렇다 44.2%로 전체의 73.0%가 참여자들의 흥미와 관심 유발에 적절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남. 이 외 별로 그렇지 않다가 23.1%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3.8%인 것으로 조사됨.

■ 참여자들의 흥미와 관심 유발 정도 (단위 : %, 응답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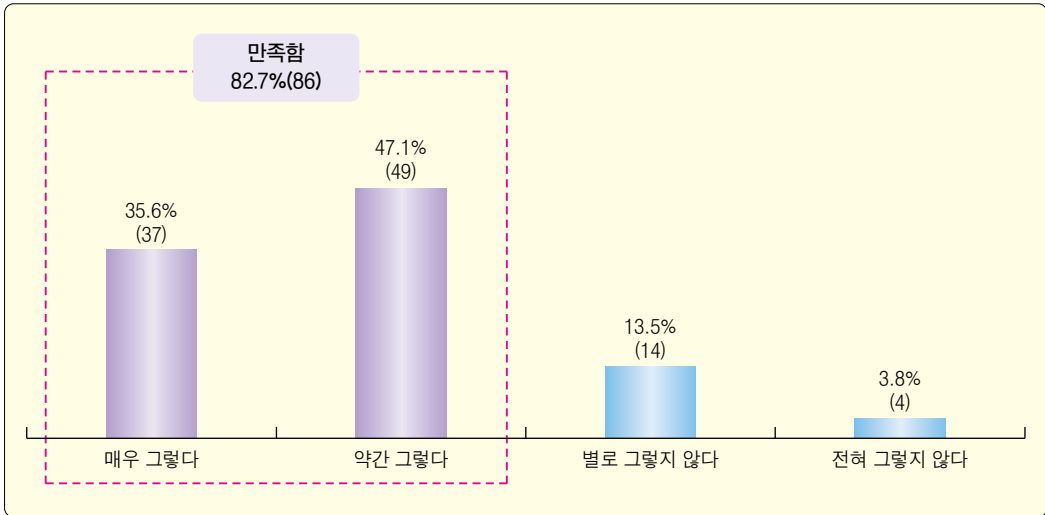
※ 2·28행사 참여자에 한해 (n=104)



4) 2·28민주운동 정신 발전 및 계승 적절성

- 2·28민주운동 정신발전 및 계승 적절성 정도를 보면, 매우 그렇다 35.6%, 약간 그렇다가 47.1%로 전체의 82.7%가 2·28민주운동 정신발전 및 계승에 적절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남. 이 외 별로 그렇지 않다가 13.5%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3.8%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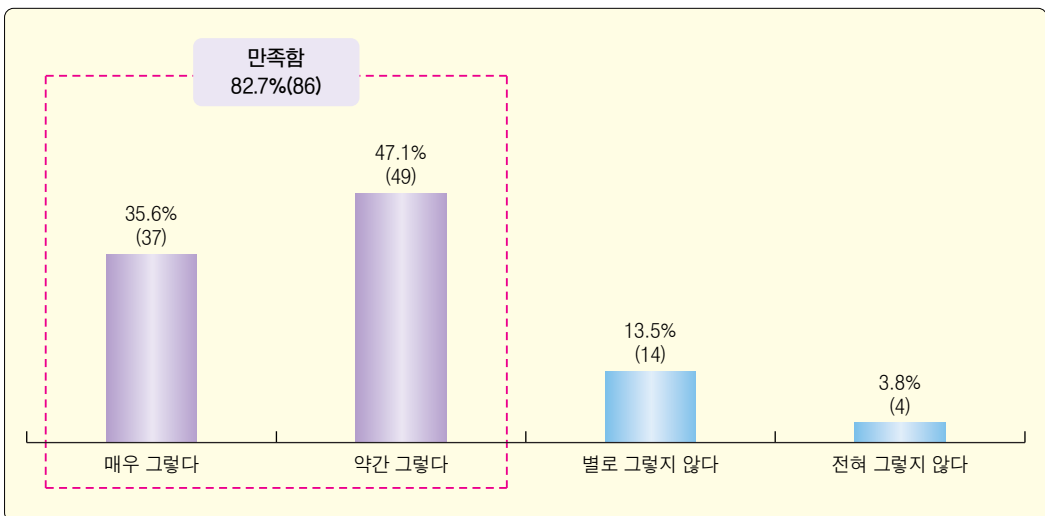
■ 2·28민주운동 정신 발전 및 계승 적절성 (단위 : %, 응답 수) ※ 2·28행사 참여자에 한해 (n=104)



5) 참여한 행사의 향후 지속 여부

- 참여한 행사의 향후 지속여부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35.6%, 약간 그렇다 47.1%로 전체의 82.7%의 응답자가 향후에도 행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외 별로 그렇지 않다가 13.5%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3.8%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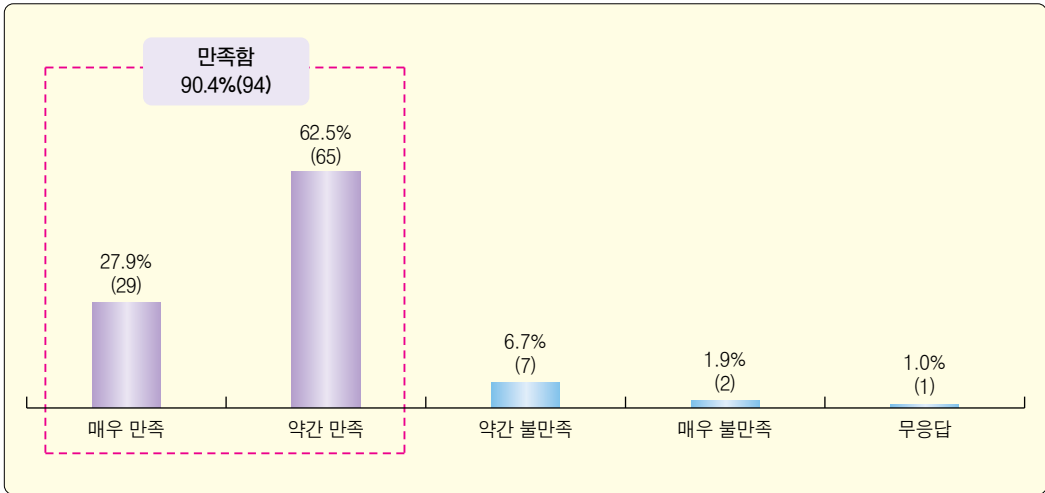
■ 참여한 행사의 향후 지속 여부 (단위 : %, 응답 수) ※ 2·28행사 참여자에 한해 (n=104)



3. 참여한 행사의 전반적인 만족도

- 참여한 행사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가 27.9%, 약간 만족한다가 62.5%로 전체의 90.4%가 참여한 행사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외 약간 불만이다가 6.7%이며, 매우 불만이다는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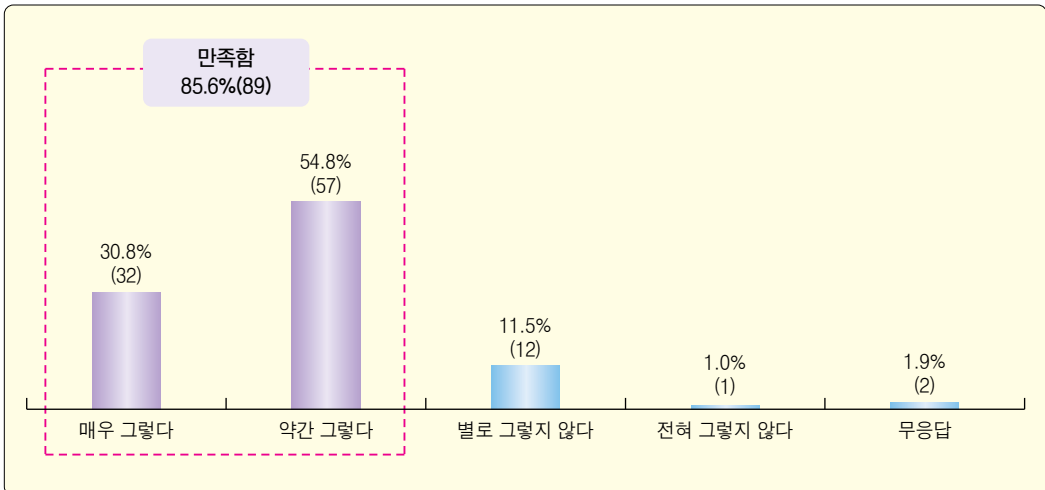
■ 참여한 행사의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 응답 수) ※ 2·28행사 참여자에 한해 (n=104)



4. 참여한 행사에 다시 참여할 의향

- 참여한 행사에 다시 참여할 의향을 살펴보면, 꼭 참여하겠다가 30.8%, 가급적 참여하겠다가 54.8%로 전체의 85.6%가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외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가 11.5%이며,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1.0%인 것으로 나타남.

■ 참여한 행사에 다시 참여할 의향 (단위 : %, 응답 수) ※ 2·28행사 참여자에 한해 (n=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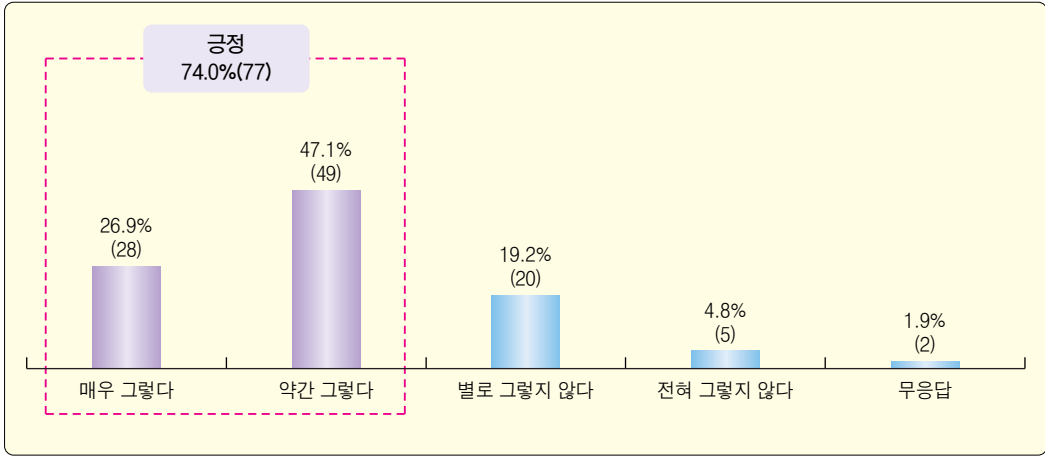


5. 주변 사람 권유 정도

- 주변 사람 권유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26.9%, 약간 그렇다 47.1%로 전체의 74.0%가 친구, 친척 등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외 별로 그렇지 않다 19.2%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4.8%인 것으로 나타남.

■ 주변 사람 권유 정도 (단위 : %, 응답 수)

※ 2·28행사 참여자에 한해 (n=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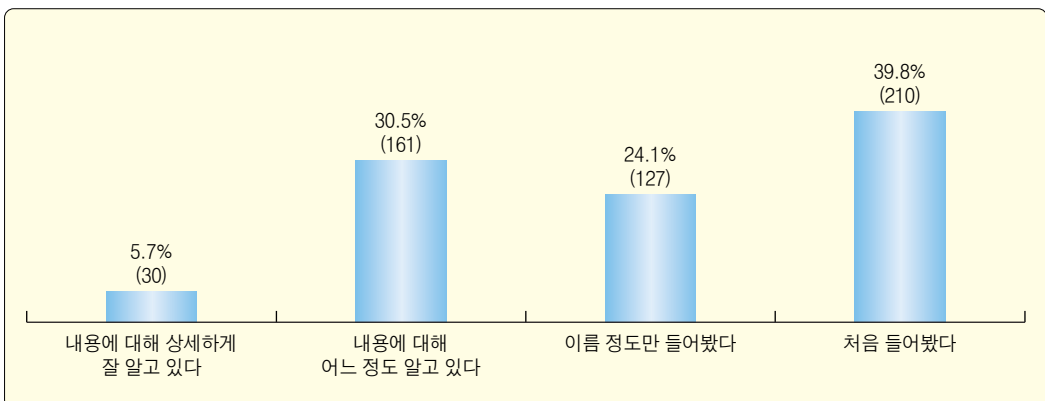


IV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기관 평가 및 개선방안

1.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인지도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7%,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0.5%, 이름 정도만 들어봤다가 24.1%로 나타나 전체 60.3%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최소한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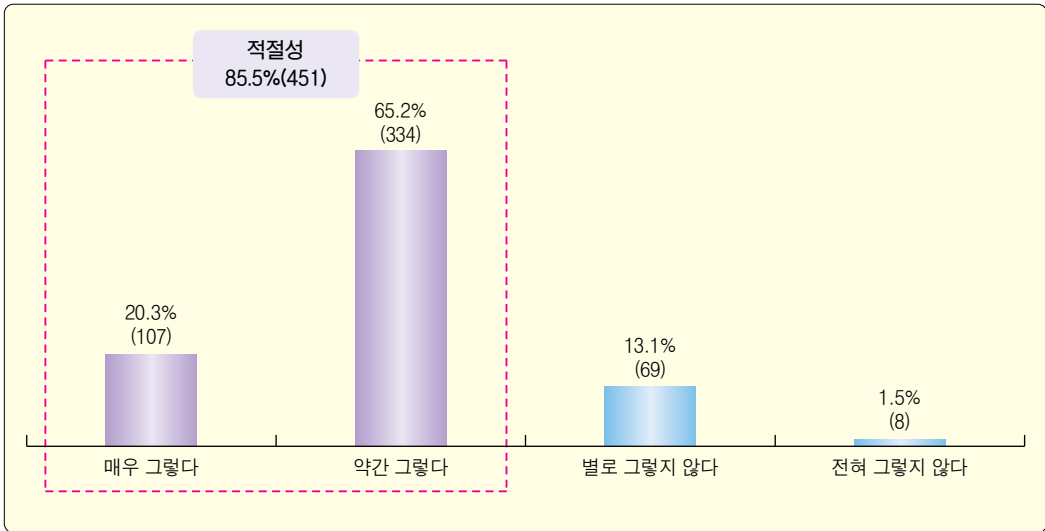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인지도 (단위 : %, 응답 수)



2. 2·28민주운동에 대한 기념 및 정신 계승 적절성

- 2·28민주운동에 대한 기념 및 정신 계승 적절성을 살펴보면, 매우 적절하다가 20.3%, 다소 적절하다가 65.2%로 나타나 전체 85.5%가 2·28민주운동에 대한 기념 및 정신 계승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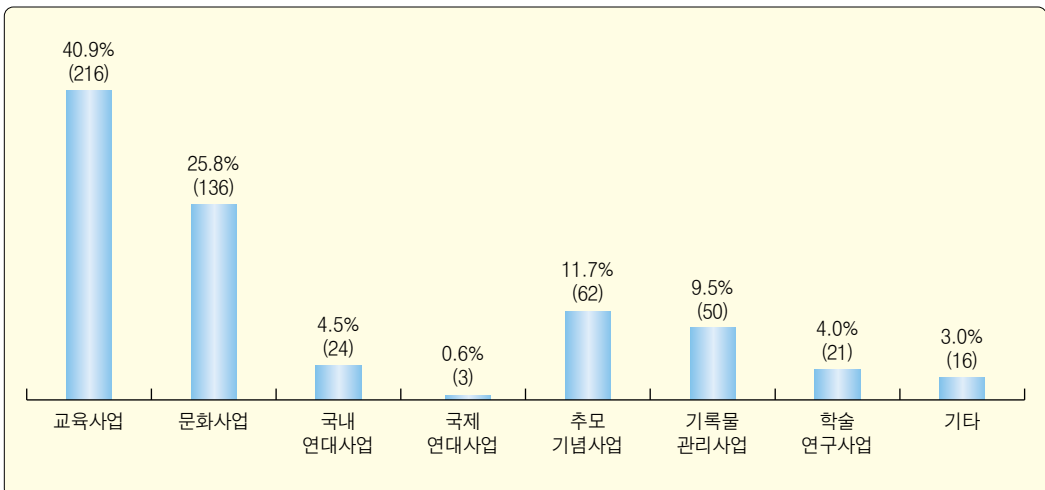
■ 2·28민주운동에 대한 기념 및 정신 계승 적절성 (단위 : %, 응답 수)



3.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 분야

- 향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분야로 교육사업이 40.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문화사업(25.8%), 추모기념사업(11.7%), 기록물 관리 사업(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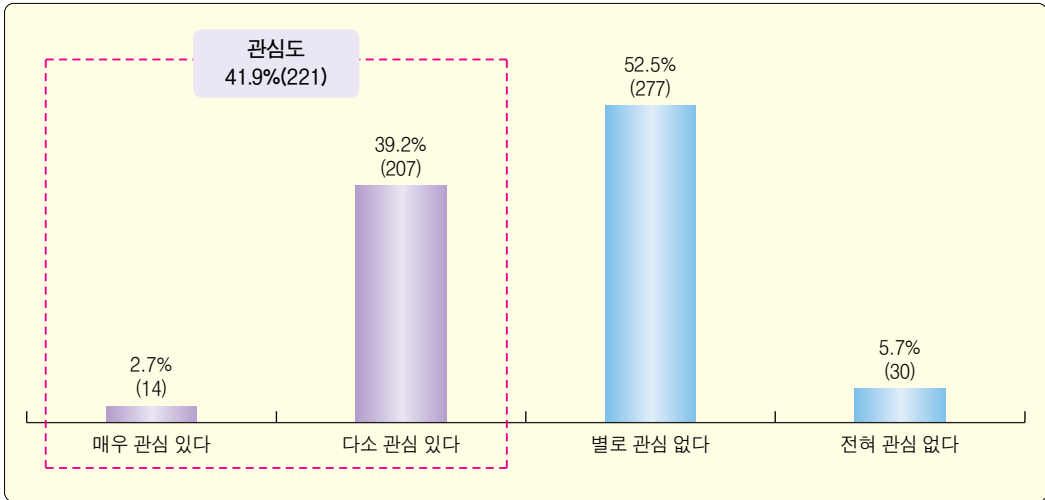
■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 분야 (단위 : %, 응답 수)



4.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관심 정도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매우 관심 있다는 응답이 2.7%, 다소 관심 있다는 3.92%로 전체의 41.9%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관심도를 보임.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관심 정도 (단위 : %, 응답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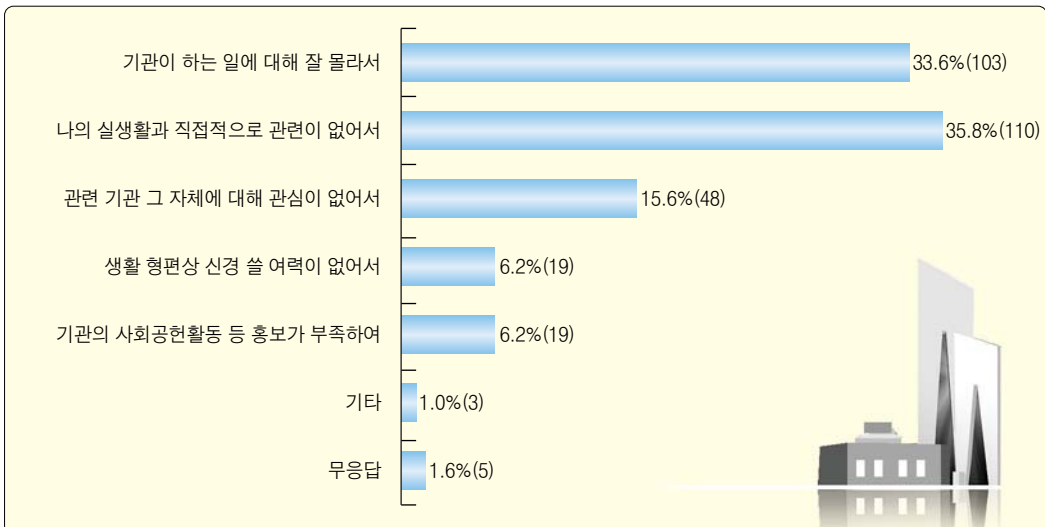


4-1.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 관심이 없는 이유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 호감이 없는 이유로 나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서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 잘 몰라서 (33.6%), 관련 기관 그 자체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 관심이 없는 이유 (단위 : %, 응답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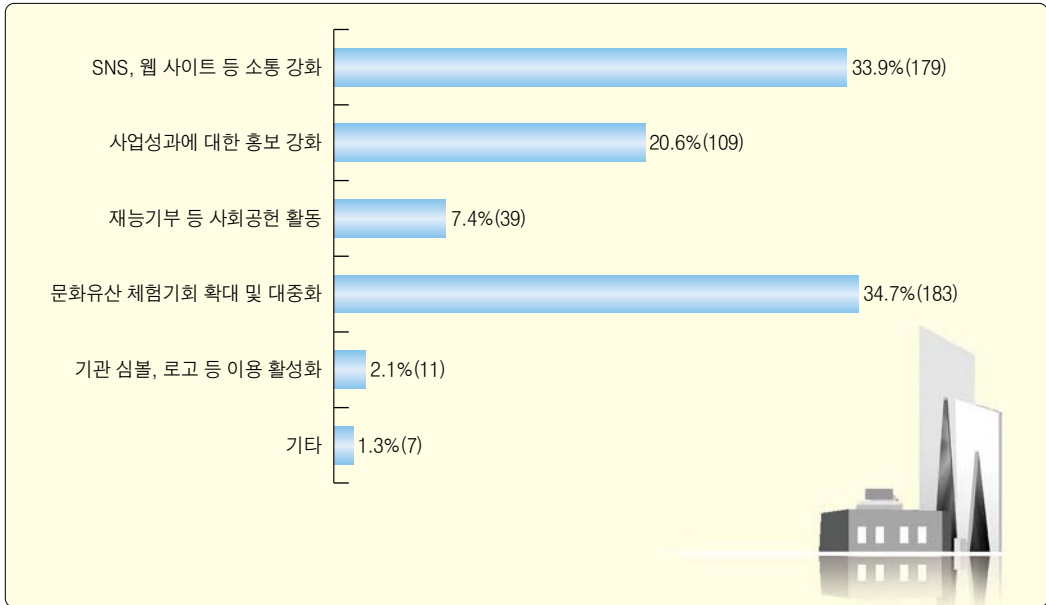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 관심이 없는 응답자에 한해 (n=307)



5.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이미지 및 관심 제고 방안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이미지 및 관심 제고 방안으로 문화유산 체험기회 확대 및 대중화가 34.7%로 가장 높았으며, SNS, 웹 사이트 등 소통 강화(33.9%),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20.6%)등의 순으로 나타남.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이미지 및 관심 제고 방안 (단위 : %, 응답 수)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경과보고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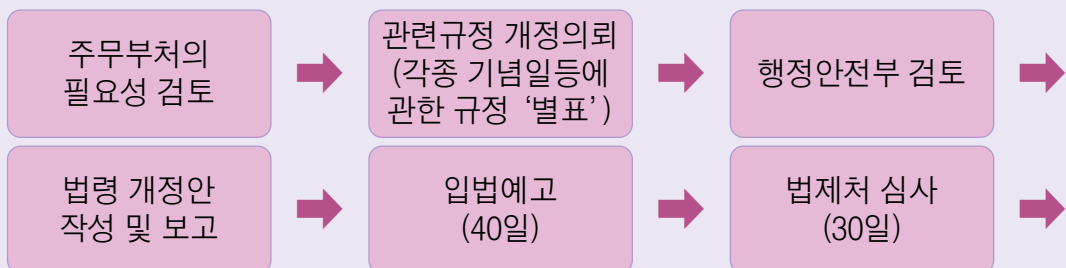
◆ 2·28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8부 능선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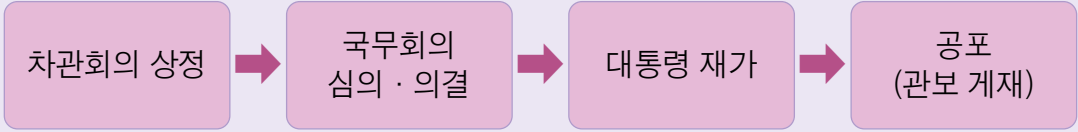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출범이후 국가기념일 지정 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이 글을 통해 간략히 드리고자 하며, 또한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는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가기념일이란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써 그 지정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48개의 국가기념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28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면 대한민국의 마흔여덟 번째 국가기념일이 되는 것이고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일로는 3·15, 4·19, 5·18, 6·10에 이어 다섯 번째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1월 2일까지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찬반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는데 통상 30일 정도 소요되며 그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정 절차를 그림을 통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 위원회 출범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16년 제5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즈음하여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하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된 것이 신호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제56회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이 날 노동일(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진영환(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신일희(계명대 총장) 등 3인을 공동대표로 하는 추진위가 출범했으며, 백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일 추진위 공동대표는 추진 선언에서 “2·2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역사적, 시대적 요청”이고 “2·28정신이 민주발전의 동력이 되고 미래세대에 빛나게 계승되어야 한다”며 국가기념일 추진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 2·28국가기념일 추진 시·도민 결의대회



2016년 5월 26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개최된 국가기념일 추진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가기념일 지정을 염원하는 풍선을 날리고 있다.

2016년 5월 26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2·2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시·도민 결의대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유승민, 조원진, 김상훈, 광대훈, 광상도 등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하여 대구·경북 시·도민 400여 명이 참석해 2·28

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 2월 28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124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어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는 서명지를 범시민추진위원회에 직접 전달하며 100만인 서명운동의 성공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힙합가수 'MC메타'가 특별출연하여 김윤식 시인의 “아직도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을 랩으로 선보였고 2·28주역 중 한명이었던 최용호 2·28기념사업회 고문(경북대 명예교수)과 김지운 학생(경북여고 2학년)이 함께 무대에 올라 국가기념일 추진 의미와 실천 강령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 국회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 발의 및 국민대토론회



2016년 1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의 활동도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2016년 6월 16일 '2·28 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조원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강효상, 박대훈, 박상도, 김부겸, 김상훈, 김석기, 김순례, 김정우, 윤재옥, 이양수, 이완영, 정종섭, 정태욱, 주광덕, 주호영, 추경호, 홍의락 의원(가나다 순) 등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11월 9일에는 조원진, 김부겸 의원 공동주최로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노동일 추진위 공동대표의 발제와 박상중(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안동일(4월회 초대회장), 차명석(5·18기념재단 이사장), 이용식(문화일보 논설주간), 이동관(매일신문 편집부국장), 김주용(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한창섭(행정자치부 의정관) 등의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2·28의 국가기념일 지정과 민주주의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동일 사월회 초대회장은 “다른 여타의 민주운동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기려지고 있음에도 4·19혁명의 도화선이요, 출발점인 2·28민주운동만 아직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국가기념일로 빨리 지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라며 2·28의 국가기념일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2017년 4월 17일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노동일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의 안내로 2·28기념탑에 참배·헌화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후보) 2·28기념탑 참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7년 4월 17일 대선유세의 첫 행보를 2·28기념탑에 참배·헌화하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구의 2·28민주운동 기념탑에 참

배·현화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운동의 효시인 2·28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16년 6월 16일 발의된 ‘2·28 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에 앞서 9월 21일에는 해당 상임위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즉시 행정안전부로 이송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기본 검토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2·28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더욱 탄력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청원서 제출



2017년 10월 11일 노동일 의장, 이광조 전 의장, 박명철 고문과 대구시 관계자들이 안전행정부 김부겸 장관을 방문하여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7년 10월 11일 추진위는 국가기념일 지정 청원서 및 100만인 서명부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일 추진위 공동대표는 “2·28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 지정이 국가적 상생과 통합의 정신으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28 민주화운동은 대구의 자존심이며 고유한 정신으로 고양시켜야할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상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2017년 12월 현재까지의 간략한 활동경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몇 가지 절차가 남았지만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전망은 ‘확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진위는 남은 절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원해주셨던 시·도민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 12월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위원회

2·28 대구 민주운동과 대구 정신



이 상 규
경북대 교수

‘대구시민의 날’ 지정

대구의 시민정신을 현창하기 위한 대구시민의 날을 지정한 유래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1982년 6월 ‘대구시민의 날’ 조례가 제정되어 대구직할시 승격 100일째가 되는 10월 8일을 ‘시민의 날’로 처음으로 지정하였다. 이 시민의 날 주간에는 달구벌 축제와 자랑스런 시민상을 수여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전개하였지만 대단히 막연한 기념행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탓으로 인하여 2003년에서 2011년까지는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는 개최되지 못하고 다만 자랑스런 시민상만 수여하는 등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가 2012년에 시민의 날이 부활되어 기념식 개최와 함께 시민상을 수여하는 행사로 이어졌다. 특히 권영진 시장이 취임한 이후 대구의 정체성을 살려내려는 의지를 실어 2017년 2월 21일에 국채보상운동기념일인 2월 21일부터 2·28 민주운동 기념일인 2월 28일까지 8일간을 ‘대구시민주간’으로 선포하였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2011년 11월에 권기일 의원이 시의회에서 “시민의 날 활성화를 촉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시민행사 부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2015년 6월 최길영 시의회 부의장께서 시민의 날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2·21 국채보상운동, 2·28 민주운동기념일에 맞추어

그 기간 동안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면 시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는 논의들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영진 시장께서 대구시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17년 2월 21일에 「대구시민주간 선포식」의 전문을 선포하였다. 이제 시작되었지만 향후 대구지역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을 수립하는데 매우 주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틀림이 없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의 문제는 바로 대구시민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대구 시민의 날’의 목표와 지향점이 매우 분명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은 물론 2·28 민주운동의 정신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있는 덕으로 2017년 유네스코에서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기록을 세계 유네스코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에 이르렀고 2·28 민주운동 기념일도 국가기념일로 등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거저 떨어지는 것은 없다”. “거룬 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세속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 대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철학적 지향점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대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역사적, 문화적 다양한 자랑거리는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가운데 근현대 일제에 대한 경제적 자립과 민족자산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민중운동인 국채보상운동과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의 발원이었던 2·28민주화 운동은 비단 대구사람들만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이들에게 자랑거리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2017년 2월 21일에 권영진 시장이 선포한 「대구시민주간 선포식」의 주요한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할까 한다.

“오늘 우리는 대구의 자랑스러운 정신을 함께 되새기고, 그 뜻을 세계로, 미래로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순간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부터 2·28 민주운동 기념일인 2월 28일까지 8일간을 「대구시민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대구시민주간을 통해 자랑스러운 대구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더욱 높이고 하나 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대구시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 더욱 진가를 발휘하여 왔습니다.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 나라의 빛을 대신 갚고자 ‘국채보상운동’을 이끌었고, 독재와 부패에 저항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바로 「대구시민주간」의 정체적 지향성이 바로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지향점 위에서 대구시민정신을 더욱 발전적으로 육성해야 할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시는 대구시민주간 선포를 통해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에 대해 온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온 국민이 함께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반드시 등재시켜 우리 대구의 위대한 정신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2·28민주운동 기념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온 국민이 함께 기념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 1) 대구 정체성을 고양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2) 시민 스스로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아가도록 아카이브 설치, 3) 대구사 발간, 4) 시립박물관 건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도시의 자긍심이 될 대구간송미술관 건립도 2021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매우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느 한 가지 빠짐없이 주요한 이들과 과제들은 하나씩 알찬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의 기록유산이 유네스코 등재확정뿐만 아니라 2·28 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 문제 또한 곧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립박물관의 부재로 인해 대구시사 자료나 대구 사람들의 생활사 자료나 유산들이 방치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으나 이제 대구시립박물관 건립 추진과 함께 이러한 자료들의 보존과 알찬 연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17년 이후 ‘대구시민의 날’의 기념일이 10월 8일에서 2017년 2월 21일에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부터 2·28 민주운동 기념일인 2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재조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명칭도 ‘대구시민의 날’에서 ‘대구시민주간’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두드러진 변화이다. 무엇보다 이 선언문에는 여러 가지 시장의 공약 사항도 담겨 있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날’ 선포일이 엄동의 계절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반론도 일부 제기되었고, 정부에서도 주로 10월 3일 개천절에서 10월 9일 한글날 기간을 활용함으로써 개방적인 시민참여의 정도를 높인다는 면에서도 합일되지 않는 여론도 만만찮다. 10월 문화예술 축제와 굳이 분리해야할 절대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여론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지정되어 있는 「대구시민주간 선포식」의 날짜를 전면 재조정하거나 혹은 선포식 기간 중에 특정한 날짜를 고정시켜 대구시민의 날을 특정일로 지정하여 그날 개폐회식 중간에 자랑스런 시민상을 수상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당면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대구시민주간」일 지정에 대한 사전 충분한 여론 수렴이 부재했던 이유도 들 수 있지만 완전한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미 「대구시민주간」의 일정을 존중하고 그 기간 가운데 어떤 날짜를 지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행정 행위로서 선택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구시민주간」의 행사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시민 가슴가슴 안겨질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는 충분히 논의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례

대구의 성장 과정을 ① 인구의 증대, ② 상공 산업, ③ 교육과 문화 예술, ④ 정치사회적 변화와 적응 이라는 몇 가지 기준과 틀을 통해 대구의 정체성과 대구의 과거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먼저 인구 10만의 도시, 1904년 경부선 개통과 소상공인의 도시의 시대에 대구의 계몽 교육과 근대화산업화 물결은 한편 일체에 저항하면서 한편 일체와 공유하면서 성장 발전해 왔다. 대구광문사와 대구광학회가 중심이 되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는 대구의 야성적 힘을 과시하기도 하였으며 비밀결사단체인 조선국권회복단을 조직하여 3·1만세운동, 1927년에는 신간회 대구지회를 결성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대구와 경북을 잇는 광복단 의열단원, 1930년대 이후 학생비밀결사운동을 통한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을 항일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된 고장이었다. 이 시기에 대구는 상공산업이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한 곡물유통 상공인과 서문시장을 중심으로 한 의, 식, 주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주조사업, 초자공예기술, 견사공장, 항공기 두랄루민 산업, 섬유산업, 약령시 등 한국 근대 산업의 기초를 다지는 초병역할을 다하였다. 교육문화의 도시로서 계몽학교와 전국 제3고보, 계성과 교남, 영남 등의 사학의 발전을 통한 근현대교육의 발전과 근현대 예술의 출발선에서 당대 최고의 예술인들을 배출한 도시이기도 하다. 정치사회적 변화와 적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임란에 항거한 의병과 민병 활동, 일체에 항거한 고결한 대구인들의 의식은 자랑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국가에서는 국경일이 있듯이 지방정부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시민주간 선포」 일 지정이 진정으로 시민들의 자부심을 갖는 의례(儀禮)일이 되기 위해 단순한 축제 형식으로 발전되기보다 국경일과 같은 엄숙한 의례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토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지로써의 대구가 갖고 있는 한계인 폐쇄성을 개방성으로, 현대 정치사의 흐름에 기인한 비판적 야성의 회복과, 지금까지 누적된 적폐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대구시민주간 선포」에 차근차근 담아내어야 할 것이다.

국채보상운동 관련 사료 수집과 연구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으며 2·28 민주운동 사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료 중심의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관점에서 대구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 더 발전적인 의식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화적 전략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국채보상운동이나 2·28 민주운동은 그 정신적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역사적 사실의 진행과정은 매우 건조하고 단순하다면 단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풍성하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이벤트로 발전시키

기 위한 고뇌와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2·28 민주운동이 발생한 전후 대구신문에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이라는 시를 발표했던 서지 김윤식 시인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3·15 마산의거와 4·19를 잇는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발표된 시들을 묶어서 대구와 타 도시와의 일련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문학제로 형상화하는 기획이나 더 나아가서는 제3세계 민주문학제로 발전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문화는 시민들에게 환원되며 시민들이 함께 가담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배양하는 인큐베이터로서의 대구시민주간으로 발전하기 위해 먼저 대구지역의 지리역사적 특성, 대구지역의 산업 발전의 특성, 대구지역의 교육문화 발전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한 다음 이러한 역량을 뭉쳐서 대구를 소상공도시로 재점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포효하는 야성(野性)의 도시 대구

「대구시민주간 선포식」이라는 행사가 단순한 퍼포먼스 수준에 멈추어 있다면 시민의 호응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자긍심 고취라는 명분의 빛도 잃어버릴 것이다. 국제보상운동이나 2·28 민주운동 정신을 일깨워 다시금 포효하는 살아 움직이는 도시로 가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대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재점검하고 대구 발전을 위한, 그리고 대구시민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철저한 사료조사와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아카이브가 없이 대구의 교육과 산업과, 문화와 예술을 논의하는 것은 뜬구름 잡기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구를 “교육의 수도”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대구 교육의 근현대 발전사에 대한 사료는 너무나 부족하다. 예를 들면 애산 이인 선생이 계몽기 시대에 ‘달동소학교’를 나왔다는 기록을 토대로 달동소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 해도 교육청(홈페이지 등)에서조차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대구가 근대 이후 소상공 도시로 발전해 왔지만 소상공 도시로서의 발전사나 소상공인의 활동역사는 어디(상공회의소, 대구광역시사)에서도 찾아볼 길이 없다. 한때 대구의 주력 산업이었던 섬유발전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구가 일제 강점기에 초자공예기술(전구 제조)의 시장 점유율이 전국 30%정도였지만 그들에 대한 발전사의 기록이 전무하다. 그에 비해 일본 홋카이도에 200여 군데의 초자박물관은 엄청난 국제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인 기초 기술이 건축자재 기술로 이어져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대구 현안은 주력 생산 동력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상공 도시로서의 대

구의 특성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대구의 주력 생산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바로 10월의 가을 축제를 예술인 중심으로 야시장 축제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대구지역의 전통문화 산업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문화산업, 기술인력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다양한 전통문화 공방의 개설과 함께 도시 관광산업과 연계한 문화산업 생산자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학: 지역 스토리텔링 소스 개발→대구문학과, 이상화문학관 등
- 출판: 목판 기술 장인 배양, 경삼감영판 장판 복원→전통 문화산업
- 음악·공연: 악기 제조, 생활 음악, 국제 오페라 배우 콘테스트
→전통악기 제조 및 악기 수리
- 미술·건축: 초자 공예기술, 건축 자재→고부가 가치를 지닌 건축기자재 산업
- 스포츠: 2003 유니버시아드 국제대회, 세계육상경기 기반
→최초 IOC위원장 이상백 기념관
- 금속: 항공기 두랄루민을 활용한 공예→자동차 산업 기반
- 문화: 전통 의·식·주 연계 향토축제(음식디미방 축제)
→의·식·주 브랜드산업 해외 진출(Chang)
- 문화예술마을(전통 시장 공간 활용, 방천시장 등) 관광 수요 효과 유발→관광산업

대구 is 전통적인 소상공 소비도시이다. 꺼져버린 대구동력 산업을 이러한 전통적 문화예술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더 높은 단계로의 발전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초자공예 기술이 고부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축자재 스테인그라스의 제조 산업으로, 일제시대 수원 가미카제 공장에 공출하던 두랄루민 생산지가 바로 대구인데 이러한 전통의 단절을 다시 살려 내어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기반을 닦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랑스러운 인물에게 매년 시상을 하고 있지만 과연 대구지역의 자랑스러운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기술을 할 만한 자료는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구의 의·식·주라는 생활문화사와 관련된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4·19 이후 민주화투쟁기에 대구의 유력인사들이 현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구골통으로 내몰리면서 이 지역에서 태어난 학자, 관료,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조사 결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하나 없다.

매년 10월쯤이면 대구광역시와 각 구군청에서 벌이고 있는 지역축제는 지나치게 소비적이며 마치 야시장의 축제라고 빈정 받을 만하다. 아직도 정구지 부침과 막걸리를 돌리는 야시장

축제의 더욱 큰 문제는 낭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있다.

대구가 교육문화의 중심도시라면 그 정체성과 기품에 맞는 고급스러운 그리고 생산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구의 먹거리 축제를 ‘치킨 맥주(치맥축제)’로 성공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대구의 명품 음식과 전국 도별 초청 음식을 함께 곁들여 그 중간 중간에 예술 공연을 엮어 진행한다면 무료 축제가 아닌 입장료를 받는 축제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대구정체성, 미래와 과제

다시 논의의 원점으로 되돌아가면 「대구시민의 날」의 일정을 「대구시민의 날」로 혹은 「대구시민주간」으로 지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미 시민주간으로 선포했던 2월 22일~28일 기간 중에 어느 하루만을 잡아 시민의 날로 지정하자는 여론이 만만찮다.

10월의 문화예술의 축제기간과 달리 대구의 정신, 대구의 정체성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제정한 「대구시민의 날」은 매우 엄숙하고 울림이 있는 의례행사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이날을 기리기 위한 대구시사와 관련된 사료나 자료수집과 더불어 끊임없는 대구시민의 의식조사를 통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랑스런 시민상’의 선정은 현재의 사람만이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나 출향 인사들까지 망라하여 대구시정 발전에 혹은 국가발전에 공로가 큰 분들을 시상하여 흠모와 존경하는 마음이 후세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일정은 시민주간 가운데 의례(곧 개최 폐회)를 시행하는 날인 「대구시민의 날」은 시정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대구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정 발전에 동력을 함께 모아나가기 위해 지정한 대구시민들의 정신적인 축제기간인 「대구시민주간」은 대구의 정체성과 애향정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공도시로써의 대구의 발전사 곧 1) 교육, 2) 상공, 3) 문화예술, 4) 산업, 5) 문화사(의·식·주), 6) 인물사, 7) 정치사회발전 등 전반적인 기초자료와 사료를 단단히 확보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한 대구의 주력 신생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자부심과 애향심이 우리나라도 이 끌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대구의 문화예술 축제인 10월의 축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구시와 각 구군에서 거의 비슷한 야시장 축제, 비생산적인 축제에서 벗어나 보다 수준이 높은 문화예술 축제로 대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도시 축제 개방적인 도시축제로 국내의 타 시도와 공존하는 동시에 외국까지 상호 초청하는 국제화한 지성적 축제로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대구지방생활사의 면밀한 기초자료 수집과 조사는 필

수적인 요건이다. 시장께서 ‘대구시사’ 편찬을 이미 약속했듯이 생활중심의 보다 내실 있는 대구지방생활사의 사업과 더불어 사료의 구입과 기증을 통한 전시시설인 ‘대구시사박물관’의 건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구의 주력 산업의 부활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 대구의 자부심 회복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잘 사는 도시, 행복이 충만한 도시, “지역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에 발맞춘 대구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지정한 「대구시민주간」의 의례행사는 대구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신축제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며, 풍요로운 결실의 10월 가을축제는 문화예술 축제로 균형과 조화로운 대구시민 행사로 거듭나길 바란다.

특히 2·28 민주운동의 시민정신으로의 확장을 위해서도 먼저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구의 정치지도자들이 앞장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살갑게 다가설 수 있는 문화적 확장을 위해서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문화행사의 연대화를 비롯하여 가능하다면 제3세계 국가들과도 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창을 열기 위해, 새로운 창들의 유리를 시민들이 함께 고이 닦아야 할 것이다. 행여 우리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구태의 때가 끼었다면 부끄러워 말고 스스로 뗏자국을 지워낼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2·28 민주운동의 본래의 정신이 아닐까? 

전 국립국어원장, 도쿄대학교 객원연구교수, 브링검햄대학교(BYU) 방문교수, 칭다오대학교 고문교수를 역임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방언조사연구원, 울산대 교수를 거쳐 현재 경북대학교 교수이다. 대한민국 국회 입법고시 출제위원, 교육부 인문학육성위원, 통일부 거례말큰사전편찬위원 및 동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경북방언사전』(2002 학술원우수도서), 『한국어방언학』, 『언어지도의 미래』(2006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훈민정음통사』(2014년 한국연구재단 우수도서), 『증보훈민정음발달사』, 『한글고문서연구』(2012 학술원우수도서), 『사라진 여진어와 문자』(2014 문화체육관광 우수도서), 『한글공동체』(2015 세종도서 학술부분 우수도서) 등의 저서와 국어학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일석학술장려상(1986), 외솔학술상(2011), 봉운학술상(2012), 한글발전유공자상(2014), 대통령 표창(2004)을 수상한 바가 있다.



질경이

윤회병원 뒷마당
낙엽 사이로
나른한 햇살 쬐이고 있다.

집과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신까지 잃어버리고
물음 앞에 한참 말없이 머물다
보고 싶어 오래 바라보면
왓지 낯설어진다.

잃어버린 세월이지만
가끔씩 자식이 눈물과 겹치어
양상하게 마른 질경이
멍울 맺히고

다 버린 줄 알았던 입칠
아직 턱밑에 모질고
다 잊은 줄 알았던 막내자식
아직 손끝에 시리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상처 난 잎새 말라가고 있다.



박 태 진
시인

경주출생
계간 『문장』 신인상
대구문협 부회장, 대구시협 이사, 13詩, 문장작가회 회장 역임
(주)태광아이앤씨 대표이사
시집 『물의 무늬가 바람이다』, 사회집 『13시』

그해 4월

상처 없는 사랑은 어디에도 없겠지
온 나라를 휘감은 소문의 마디마디
끝끝내 찾을 수 없다 저항 잃은 너의 눈빛

제풀에 벗긴 알몸 발아래 조아리며
끝끝내 못미더워 일어서지 못한 채
스스로 배신을 자초해 무더기로 진 꽃들

사방은 푸른 혁명 꽃물로 얼룩져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며 또 피겠지
봄날을 다 태운 허기 역병처럼 퍼지겠지



김 용 주
시조시인

2009년 『시조세계』 『대구문학』 신인상 등단
한국시조시인협회, 대구시조시인협회 회원,
시조세계포럼 편집위원,
도동시비동산운영회 사무국장

엄마의 집

임은주
수필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니 밤 10시가 지나고 있었다. 아직 시월인데 서둘러 찾아온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든다. 제법 차갑다. 하늘엔 갓털 같은 초승달이 눈앞에서 멀어져 간다. 이렇듯 사라지는 것은 언제나 애뜻한 감정이 남는 것일까.

달을 보고 걷다보니 어느 새 친정집 앞이다. 나에겐 고향과도 같은 동네. 아버지의 오랜 지병으로 집까지 날려 버리고 이 동네로 들어온 지 40년이 지났다. 동짓달 초아흐레가 점순이 아버지 제사고, 목수 아저씨 딸 명희가 방직 공장에서 돈을 벌어 텔레비전을 사 보냈고, 담배 가게 집 딸 경화가 대학생과 연애질하더라는 것 까지 속속들이 다 아는 동네였다. 그곳에 빌라가 처음 지어졌을 때, 둘째 언니가 엄마의 이름으로 사 드린 집이었다. 그때 엄마의 눈물을 처음 보았다. 기쁘면서도 딸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몇 년간 병원에 계시면서도 당신 죽기 전에는 집을 팔지 말라하셨는데, 그런 집을 내손으로 팔다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너무 오래 비워 둔 탓인지 황량하고 쓸쓸한 기운이 먼저 와 닿는다. 집안은 인기척 하나 없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하다. 텅 빈 집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다. 한때는 육 남매 웃음소리 들리며 왁자지껄 했는데, 그 식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엔 적요만이 감돈다. 한 시절 행복을 누린 적도 있었으나 그 시절 뒤로하고 지금은 적막강산이 되어버린 집. 어머니가 느꼈을 그 쓸쓸하고 외로운 날들의 빛깔이 가슴속으로 스며든다.

안방 문을 열었다. 가지런히 정리된 물건들, 흐트러짐 하나 없다. 문갑위에 쌓인 먼지가 주인의 오랜 부재중임을 말해준다. 장롱 문을 열어보니 핑크색 보자기로 덮어진 명주솜이불이 반듯하게 개켜져 있고 베갯잇은 풀 먹여서 깨끗이 다려져 있다. 한쪽 구석에 개켜 놓은 낡은 담요 하나, 오래된 이불 하나로 절망 같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움의 등불을 밝혔을까.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들이 겹쳐지면서 시끄러운 과열음들이 쏟아져 나온다. 낡은 텔레비전과 함께 어머니도 저리 늙으셨으리라 생각하니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명치끝이 아리다. 옷장 안에는 오래전에 언니가 사준 옷이 상표가 붙은 그대로 걸려 있다. 세탁비가 아까워 제대로 한 번 입어 보지 못하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애잔하다. 아래 칸 서랍을 열었다. 보자기에 싸인 물건에서 아버지의 사진과 수의가 나왔다. 당신이 이승을 떠나실 때 입고 가실 옷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나 보다. 가슴이 먹먹하다. 기억도 나지 않는 아버지의 사진을 혼자 보면서 당신 가슴속에 품었던 것은 원망이었을까. 그리움이었을까.

베란다로 나갔다. 밧을 모르는, 아니 밧을 부러본 적이 없는 엄마지만 유난히 깔끔하신 분이 다. 모든 물건은 먼지 한 점 들어가지 않게, 비닐로 두세 번 꼼꼼 싸놓았다. 평소 엄마의 정갈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다. 화장실을 열어보니 타일바닥에서 머리카락 하나 없이 반짝거린다. 손 놀리면 아깝다하시며 늘 쓸고 닦으시니 오래된 물건들이라도 반듯반듯하다. 당신 없으면 다 버리라 하신 말씀을 왜 진즉 헤아리지 못했을까. 모두가 낡고 오래된 것들만 어머니와 함께 했다는 것을 생각하니 목이 메여온다. 집안을 다 돌아보고 현관을 나서다 말고 신장을 열어 보았다. 엄마 신발 두 켤레만 덩그러니 있다. 딸 부잣집이라 신장이 작아 늘 현관이 복잡했었는데. 엄마 신발을 들고 집을 나섰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 집에서 살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는 왜 병원이 좋다고 집을 팔라 하시는 건가. 몇 년간 지속하여온 딸들이 내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우셨을까? 지금은 반 백 년의 세월은 다 잊어버리고 병원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마냥 즐겁게 지내고 계신다. 생애 처음으로 편안해 하시는 모습이다. 이제 병원은 엄마의 집이다. 내겐 힘들 때 마다 안방 아랫목에 이불 뒤집어쓰고 울 수 있는 친정은 사라지고 없다. 마음속에만 남아있을 집. 아 그리운 엄마의 집. 자주 엄마를 보러 병원으로 찾아가리라. 卍

현)대구교육대학교 출강
 대구한의대학교 박사수료
 문인협회 회원
 수필가 협회 이사

2·28운동으로 가는 길

장 준 원

대구공업고등학교 1학년

오늘은 그다지도 어둡지 않은 날이라 나는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었다.

“오늘 무슨 요일이예요?”

나는 엄마에게 오늘의 날짜를 물어 봤다. 그러자 엄마

“달력 봐라~~”

나는 봄방학을 처음 시작한 후 처음으로 달력을 보았다.

“어... 2월 28일이네?”

나는 반에 중간 정도 공부하는 녀석이지만 2·28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아~어제도 친구랑 놀아서 만나기는 좀 썩끄러운데...”

어제도 친구를 만났던 터라 나는 선뜻 친구에게 전화를 하지 못했다.

“에휴 딴 애랑 놀아야겠다~ 흠~민규랑 놀까나?”

나는 잘 놀지 못한 민규에게 전화를 건다.

“민규야, 뭐하나? 오늘 놀 수 있나?”

“아 준원이나? 나 오늘 2월 28일이라서 할아버지랑 2·28공원간다. 니도 같이갈래?”

하도 심심했던 터라 나는 선뜻 민규를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옷을 갈아입고 민규와 아파트 단지 앞에 모였다. 민규의 할아버지는 정장 차려입은 모습이 조금은 낯설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항상 속옷차림에 부채를 부치고 계셨다. 어찌 됐든 시간을 때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버스를 탔다.

나는 2·28공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내가 알던 2·28공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지금까지 아는 2·28공원의 모습은 텅텅 비고 할아버지 몇 분이서 바둑을 두고 계신 동네 공원 정도였다.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은 이게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질서 정렬하게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그 분위기에 이끌려 의자에 앉았다. 나는 민규와 게임을 얘기를 하면서 시끄럽게 얘기하고 있을 때 민규의 할아버지와 몇몇 분의 할아버지는 어째서인지 조용했다. 민규와 떠들다보니 행사가 시작했다. 국민의례가 시작하자 모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의례를 시작했다. 나는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어서 묵념을 하는데 어째서인지 민규의 할아버지는 우울한 표정을 하고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나는 이때만 해도 민규 할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알지 못했다. 행사가 진행되면서 민규의 할아버지는 노래공연이나 여러 가지 행사는 신경 쓰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셨다. 그렇게 행사가 끝나니 점심시간이었다. 민규의 할아버지는

“준원아 시간 되면 점심 먹고 안 갈래?”

나는 어차피 집에 가면 게임이나 하고 혼자 심심할 것 같아 밥 먹고 민규 집에서 놀 생각으로 할아버지의 말쑤에 승낙했다.

민규의 집은 깨끗하게 치워져있었다.

할아버지는 먹고 싶은 것이 없냐고 물으시자 “나는 짜장면 먹을래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중국 집에 전화를 하셔서 비싼 간풍기까지 시켜주셨다. 민규가

“야~너 우리집은 처음이지?”

라고 말했다. 그렇다 나는 민규 집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민규를 따라서 집안을 구경했다. 둘러보다 보니 다른 문은 다 새 거인데 유독 내가 본 그 문 하나만은 낡고 바꾸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을 가리키며

“여기는 뭐 하는 데냐?”

라고 하니 민규의 할아버지께서는

“왜? 궁금하니?”

라고 물어보셨다. 나는 그 문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선뜻

“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문을 열어 주셨다.

문은 세월이 많이 지났는지 중후한 느낌의 “끼익”이라는 소리를 내뿜었다.

할아버지의 방은 책상과 책장이 있고 매트리스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나는 그 방에 들어가자 오래된 책 냄새가 가장 먼저 나를 반겨주었다. 나는 바로 코를 부여잡자 할아버지께서

“허~허~냄새가 좀 나지? 하지만 나는 이 녀석을 버릴 수 없어...”

그러자 나의 호기심을 한 번 더 자극시켰다.

“이 녀석이요? 책한테 이 녀석이라고 하시네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쓸쓸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왜인지 아니? 이 책들은 나의 훌륭한 기억들과 다신 볼 수 없는 친구가 담겨있거든”

나는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무슨 기억이에요?”

라고 물어보니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알고 싶구나? 좀 길텐데 들어볼터?”

나는 자신있게

“네!”

라고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매트리스에 우릴 앉히고는 한숨을 쉰 후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이건 학창시절에 이야기란다.”

할아버지는 1960년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셨다.

그 때만해도 6·25전쟁이 끝이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못 살았다. 미군에게 초콜릿을 동냥하는 아이들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장사를 했다. 할아버지는 대구고등학교 출신으로 할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졌다. 후보자는 2명 장면 박사와 이승만이였다. 이때에는 이



승만의 장기집권으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라고 했다. 그리고 2·28일에는 장면 박사의 선거 연설회가 있었다. 할아버지와 친구분들은 장면 박사에 선거연설을 보고 싶었다고 하셨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요일에 학교를 나오라고 했다고 하자 나는 할아버지에게

“일요일인데 학교를 가면 뭐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예끼~어른이 말하고 있는데! 끝나고 물어.”

라고 하고 나는 입을 꼭 다물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일요일에 학교에 나간 할아버지는 각 반에서도 불만이 마구 터져 나왔다. 선생님들은 반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어떤 녀석이 교탁 앞에 나가서 말했다.

“마~ 니들 그거 아냐?”

“뭔데?”

“우리 왜 일요일인데 학교 나온 줄 아냐고.”

“아이 문디 자숙아 어제 선생님께서 말하시는데 잤나? 토끼 잡으러 간다 안 카드나.”

“진짜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왜 뭐 있나?”

그때 반에 분위기는 할아버지와 친구들이 무엇인가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 친구가 “진짜 이유는 니들 오늘 장면박사님 선거 연설회인지 알제? 그거 못 가게 할라꼬 일요일날 학교오라고 하는 기다!”

“진짜가?”

삼시간에 반은 진짜라는 의견으로 분분해졌다. 그 상황에 그 녀석이

“오늘 11시에 다른 학교 애들하고 모이기로 했다. 다른반 애들은 다 아니깐 니들도 갈 애들은 준비해라 이게 무슨 민주주의고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른말이여?”

그 말을 듣자 할아버지는 가슴 한구석에 뜨거운 것이 타올랐다. 아이들은 시간이 남자 유서와 편지를 쓰는 애들, 선생님의 망을 보는 애들, 시위 물품을 만드는 학생들 등 여러 아이들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준비했다. 이 말이 끝이 나자마자 할아버지는 상자에서 낡은 편지지 한 장을 꺼내주었다. 우리는 편지를 펴자 할아버지의 유서가 담겨 있었다. 그 내용은 말을 할 수 없는 감정이 나의 마음을 찼다. 나는 그때 할아버지의 고교 생활이 짐작이 갔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그리고 11시가 되자 아이들은

“독재정권을 물리치자, 이게 무슨 민주주의인가? 내가 배운 민주주의는 이렇게 아니다! 이승만은 물러가라.”

우리는 구호를 외치면서 교실을 일제히 나섰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짐작으로나마 주도자는 퇴학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너도나도 반장들까지도 주도적으로 앞에 나섰다. 선생님들은 우리를 막아섰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내가 짐작하기에는 선생님들도 민주주의의 실천이 옳다고 인정한 것 같다. 어찌 됐든 학생들은 교문을 벗어나서 학생들끼리 만났다. 학생들은 이미 준비한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그러자 경찰들은 벽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두려워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경찰은 학생들을 일제히 무력으로 진압했다. 잡힌 학생들은 얼굴이 피투성이였지만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았다. 도망치는 학생들은 상점가에서 숨겨주었다. 그때 할아버지도 동네 슈퍼 할머니가 자신을 숨겨주셨다고 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다시 모여 진격했다.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다시 진격하기 시작했다. 진격하고 쫓기고를 반복하면서 할아버지의 친구 분이 잡혀가셨다고 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움푹 패인 눈가에 눈물이 가득히 고였다. 그리고 먼지가 가득한 상자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친구 분과 할아버지의 사진과 낡은 손목시계가 하나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멈추어버린 손목시계를 보며 이 말씀을 하셨다.

“이 손목시계는 내 친구가 자신이 잡히거든 이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꼭 후대에게 보여주어 2·28운동을 잊지 않게해줘 라고 약속을 하고 받은 시계란다. 이 시계는 어떠한 보석보다 귀한 역사가 담겨있단다.”

라고 말씀하시자 나는 진짜 그 순간 머리에 망치가 날아와 세계 친 것만 같았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2·28은 그것만으로 아주 중요한 역사란다. 2·28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을 주었다단다.”

“너희들 혹시 4·19민주화운동을 아니?”

나는 수업시간에 강조한 내용이라서 그런지 잘 알고 있었다.

“네 할아버지 4·19민주화운동을 잘 압니다.”

라고 하자 할아버지께서는

“그럼 혹시 2·28민주화운동이 4·19운동의 시발점이라는 것도 알겠구나?”

나는 잘 알지 못했다. 나는 역사를 시험점수에만 신경 썼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역사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후대들이 이어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희생은 묻히고 말거야 그것을 명심해 두는 게 좋을 거다. 이 녀석아~ 그리고 준원아 역사는 과목 같은 게 아니야 니 마음 자체가 하나의 역사가 흘러서 니가 만들어진 거란다. 나는 그것만 니들이 안다면 저승에 가도 나의 친구에게 자랑스러울 것 같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끝나자 중화요리가 도착했다.

나는 민규와 조용히 밥을 먹고 집으로 바로 떠났다. 나는 길을 걸으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워 하늘을 볼 수가 없었다.

나도 같은 고2인데 할 줄 아는 게 게임에 만화책?

‘에휴 나도 참 한심하다.’

나는 한숨을 푹 내쉬며 나 자신에게 회의감이 들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그리고 내 가슴 속 한 구석에 있던 마음에 무언가가 타올랐다. 그리고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에 맹세했다.

“역사 보존은 역사학자가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방향 중에서 가장 보람차고 알차게 보냈다고 생각했다. ▮

형, 누나 감사해요

김 한 진


충남 아산 탕정초등학교 5학년

2·28민주운동은
까만 교복의
고등학생 형과 누나들이
이뤄냈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셨나요?”
맨 손으로 서로의 어깨를 의지해
형사들의 구둑발과 발길질을
주변 사람들의
무기력한 시선들을 이겨냈지요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
자유에 대한 소망이
형과 누나에게 힘을 주었나봐요

형들의 힘찬 외침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낸 용기는
우리에게 민주화를 안겨주었어요

형과 누나들의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횃불이 되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이제 나와 우리가 함께 외칠거예요. 

자주, 민주, 창조의 도시, 대구



이 효 수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전 영남대학교 총장



왜 지역의 정체성이 중요한가?

지역 정체성은 단지 추상적 의미의 이미지를 넘어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역 정체성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면 지역민들이 자긍심을 갖기 어렵고 인구의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더 심화되면 그 지역 출신들이 다른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인재가 모이는 곳으로 기업이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 정체성은 지역발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구 경북은 ‘보수’의 이미지가 강하다. 오늘날 보수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좋은 의미의 보수(Good Conservatism)’는 전통적으로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반동주의(反動主義)나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려는 수구주의(守舊主義)와 같은 ‘나쁜 의미의 보수(Bad Conservatism)’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좋은 의미의 보수’는 지역민들에게 높은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다. 그것은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 제도,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치는 역사적, 경험적으로 자연스럽게 객관적 합리적 평가를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다. 인간관계의 질서를 유지해 온 도덕 윤리의 기본적 가치를 지키려는 것은 보수에 가깝다. 서양에서 형성된 경제적 자유주의는 또한 보수에 가깝다.

문제는 대구 경북의 보수의 이미지가 ‘좋은 의미의 보수’가 아니라, ‘나쁜 의미의 보수’ 즉 ‘수구(守舊)’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에서도 은연중에 이러한 의미에서 대구 경북을 보수의 상징처럼 다루는 경향마저 있다. 수구적 의미의 보수는 합리성과 객관성, 개방성과 관용성이 부족하고 배타성, 폐쇄성, 연고주의, 권위주의, 무책임주의 등이 강하다는 이미지로 확대 인식된다.

지역발전에 이것만큼 큰 장애요소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역에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겠는가? 인재들이 모여들지 않는데 창의적 인재들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첨단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데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겠는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데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도시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지 않는 도시에 미래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부정적 의미의 보수’로 잘못 덧씌워진 도시 이미지를 탈각시켜야 하는 이유이고, ‘긍정적 의미의 보수’로서의 그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구 경북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자주, 민주, 창조로 본다. 대구 경북의 자주정신은 신라시대에는 화랑정신, 조선시대에는 선비정신, 임진왜란 시기에는 의병활동, 국권상실의 위기에서는 국채보상운동, 식민치하에서는 독립운동, 근대화 초기에는 새마을운동 등 역사의 고비마다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나라의 갈 길을 선도해 왔다.

근현대에 자주 정신이 실천적 행동으로 발현된 가장 대표적인 시민운동이 바로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이다. 일제가 1900년대 초 침략야욕을 갖고 간교한 방법으로 상업자본을 침투시켰고, 그 결과 국가가 과도한 외채로 주권 상실의 위기에 빠졌을 때 전 시민이 스스로 일어나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하여 국가채무 상환운동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자주 정신의 실천운동이었다. 다행히 금년에 국채보상운동은 UNESCO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 역사적으로 그 가치를 평

가받았다.

나라가 식민치하에서 고통 받고 있을 때 이상화선생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노래하면서 저항정신의 횃불을 밝혀왔다. 대구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은 항일독립 비밀결사단체 태극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다 일제에 발각되어 4명이 순국했다. 나라가 빈곤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자주 자립의 길을 선도했다.

이처럼 대구 경북의 자주정신은 역사의 고비마다 실천적 행동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자주정신이야말로 자주독립국가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고 민주, 인권의 기초이다. 국권을 상실하거나 국가가 빈곤에 늪에 빠져 있으면 민주주의도 꽃 필 수 없고 인권도 지킬 수 없다.

대구에는 또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진원지이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으킨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써 3·15 마산의 거와 4·19 민주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뿌리 깊은 자주정신의 기반 위에 피어난 민주주의의 발로였다.

자주정신, 민주주의를 행동으로 선도적으로 이끌어 온 대구 경북이 왜 나쁜 의미의 보수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 고착화된 지역주의 정치구도에서 지역의 정체성이 ‘나쁜 의미의 보수’로 오인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시점부터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나타나면서 대구 경북에 정치기반을 둔 정권이 한편으로 한국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민주저항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은 특정 정당에 일방적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대구 경북의 정치지도자나 투표 등을 통한 시민들의 정치행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경신(敬信) 사상을 실천해야 한다. 대구 경북의 기본적인 정치사상은 조선의 유교에 뿌리를 두고 있고, 조선 유교 정치사상의 핵심은 경신 사상이다. 조선 초기 조선 성리학의 수양철학을 정치적 실천철학으로 전개한 용헌 이원(李原) 선생은 경(敬)과 신(信)을 정치실천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왕에게 간하였다. 임금은 항상 하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경건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백성은 하늘과 일체(天人無間)이므로 임금은 언제나 백성의 믿음(信)을 얻을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의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경(敬)이라면, 가다듬어진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신(信)이다. 경(敬)과 신(信)의 조화는 바로 지도자의 수양과 실천의 조화인 것이다.

대구 경북의 전통적인 자주정신과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신(敬信)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고 이러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시민의 안목 및 실천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대구 경북이 건강한 보수(Good Conservatism)의 본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언론, 시민문화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러한 수준 높은 정치의식의 회복이 필요하다.

자주, 민주, 창조의 도시, 대구

대구 경북은 전통적인 자주정신, 민주의식을 기초로 창조가 꽃 피는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자주정신, 민주의식의 기본 가치는 인간의 존엄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끊임없는 창조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구현해 갈 때 존엄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인류는 제4차 산업혁명 즉 창조혁명의 거대한 조류를 타고 있다. 이러한 변혁기에 삶의 가치와 질을 유지하는데 있어 창조적 역량을 갖추고 이를 발휘하는 것은 필수적 과제이다. 특히 창조경제시대에는 창의적 인재들이 창조산업을 일으키고 창조산업을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모든 시민들이 창조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창조도시를 건설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VITAL 지수가 높은 세계적인 창조도시를 만들자

이효수는 2014년 저서 『창조경제』에서 독창적인 《산업혁명론》과 《경제 발전단계설》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세계 최초로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밝히고 있다. 이것은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제4차 산업혁명을 발표한 2016년보다 1년 반이나 앞선 일이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단순히 인공지능 등 몇몇 범용기술을 뛰어넘어 인간의 ‘창의적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창조혁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창조혁명에 의해 ‘창의적 지식’이 핵심적 생산요소로 되면서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경제발전단계가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도시 경쟁력의 핵심은 창조도시이다.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VITAL 지수’가 높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효수는 『창조경제』에서 ‘다양성(Variety)’, ‘혁신정체성(Innovation Identity)’, ‘인재(Talent)’ 및 그들의 ‘활동성(Activity)’, ‘살기 좋은 환경(Livability)’ 등 이른바 ‘VITAL 지수’가 높은 수준에 있을수록 창조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세계에서 ‘VITAL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도시는 뉴욕, 실리콘 벨리,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 등이다.

창의성은 다양성의 융합에서 나오고, 다양성은 개방성(Openness)과 관용성(Tolerance)에서 나온다. 도시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로 열린 도시를 만들어야 하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대구는 도시의 다양성이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다.

혁신정체성이 높은 도시에 창의적 인재가 성장하고 창의적 인재들이 세계로부터 모여든다. 혁신정체성이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대학이 아닌 지식을 생산하는 대

학,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X형인재’가 아닌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Y형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세계수준의 지역거점대학(Glocal Initiative University, GIU)’이 있어야 한다. 즉 새로운 산업의 프런티어를 개척하여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유니버시티’를 육성해야 한다. 미국의 대학원중심대학 내지 연구중심대학들은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대학을 고등학교보다 한 단계 높은 교육기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창조경제시대에는 핵심 생산요소인 창의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Y(Yield)형인재’ 즉 ‘인재(Talent)’의 양성, 확보, 활용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교육도시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후발산업국가의 인재육성방법으로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X(Xerox)형인재’를 육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X형인재’로는 4차 산업혁명도 창조경제도 실현하기 어렵다. 교육혁명을 통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Y형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이다.

인재들이 창의적 지식의 생산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식융합과 비즈니스 융합을 위한 그들의 높은 ‘활동성(Activity)’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인재가 많아도 그들의 활동성이 낮으면 창조도시의 생명력을 갖기 어렵다. 2016년 한 해 동안 런던에서 일어난 지식융합 및 비즈니스 융합을 위한 다양한 미팅 횟수가 무려 22,000건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재(Talent)들이 모여들고 머물기 위해서는 그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Y형인재’들이 선호하는 도시는 교육, 문화, 의료 수준이 높고, 산책로, 공원 등 자연환경이 쾌적하며 교통이 편리하고,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빅데이터 솔루션 등의 활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스마트 도시이다. 🏠

영남대학교 명예교수(현)
 ILERA 수석고문(현)
 경북안전포럼 대표(현)
 영남대학교 총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위원
 청조근정훈장

Well-Aging과 Well-Dying



이 상 흔

전 경북대학교병원장,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얼마 전 TV에서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가 한동안 인기리에 방영되어 이와 유사한 프로들이 한참동안 유행한 적이 있다. 전쟁참화를 딛고 여러 선각자의 영도하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지구상 가장 부유한 국가반열에 올라섰고 선진국형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100세 시대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현실로 다가왔다.

나이를 잘 먹는 것은 멋진 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살아가는 것일까 생각해볼 수 없다.

나이가 들어감에 우리의 신체능력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노화의 길로 점점 진행하게 된다. “노화는 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시기의 흐름”이라는 유명한 동물학자 콘호드의 말이 있지만 노화에는 개인차, 남녀의 성별차가 심하고 유전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실제 개인에 따라서는 노년에도 여전히 활기찬 삶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 오히려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도 있다.

우리 몸 중에서 눈의 노화는 7세부터 시작되고 45~50세에 이르러서 비로소 노안이 된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된다. 미각은 13세부터 노화가 시작되고 40세가 되면 미각신경이 노화하

여 13세에 먹었던 최고의 음식 맛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게 되며 나이를 먹을수록 짜게 먹기가 쉽다.

청각은 30세 후반부터 시작하여 이명소리 분별력의 저하, 난청 등으로 진행된다. 체력은 17세부터 노화하기 시작하는데 운동 중에서 가장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운동이 자유형 장거리 수영이다. 대개 올림픽에서 이 종목에 우승하는 선수는 17세 전후인데 이 승자도 4년 후 올림픽의 이 종목에서는 다시 승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혈관은 10세부터 노화하기 시작하여 주근깨, 기미는 10세에 시작하여 25세 쯤 눈에 띄게 되고 특히 혈관은 스트레스가 심하면 빨리 노화가 진행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사한 20대 청년 병사들의 혈관이 40대와 같이 노화된 상태로 변한 것을 많이 보았다고 한다.

노화에 특히 중요한 뇌는 20세 때부터 노화가 진행하는데 20세가 지나면 하루 뇌세포가 10만개씩 죽는다고 한다. 뇌세포는 태어날 때 약 140억 개로 일생동안 늘지는 않는다. 뇌세포 중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뇌세포 수는 약 40억 개이고 20세 후부터는 하루 10만 개가 노화하여 죽으니 10년이면 3억 6천 개, 30년이면 약 10억 개가 죽고 80세 쯤 될 때는 사용하던 40억 개 중 반인 약 20억 개가 죽게 되어 치매 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론보다 뇌를 많이 쓰고 단련을 시키면 뇌세포가 덜 죽고 사용하지 않던 뇌세포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

그럼 건강이란 무엇인가?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 즉 심신의 조화,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를 의미하는데 본래 우리 몸은 변화무쌍한 외적 자극과 환경 변화에 따른 내적 안정을 위한 항상성(Homeostasis)이 존재하여 균형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손상받으면 노화와 질병으로 진행하게 된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어쩌면 운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록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지배를 받아도 우리가 영양, 운동과 생활 양식등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40대가 지나면서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성인병이 시작되는 수가 많다. 이런 성인병들은 일단 발생하면 완치시키기란 거의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중풍, 심장병에 가장 나쁜 것이 염분과 스트레스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싱겁게 먹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방안을 찾고 폭음, 폭식 등에 의한 당뇨병의 원인제거에 힘쓰며 압도 이체는 고칠 수 있는 범주에 들어와 있으니 조금이라도 몸의 이상이 있을 시에는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함으로써 완치시킬 수 있다. 또 70건, 류마티스 등도 스트레스에 의한 노화에도 관계되니 스트레스를 풀기위한 취미생활이나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튼 60, 70, 80대는 노후를 위하여 취미생활을 곧 시작하여 무엇이든지 Lifework로서

마라톤을 하는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접어들면서 Well-Being에 관한 여러 음식, 영양소와 운동기구 등이 전국적으로 연일 TV에 소개되어 뭐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다음날 시장에서 그 물건은 동이 나곤 한다.

색깔 있는 채소들, 견과류, 등 푸른 생선, 숙성된 콩류, 요거트, 버섯류 그리고 척박한 곳에서 자라나 재생력이 뛰어난 Noni, Vitamin Tree, 잉카 피넛, 화분 기타 각종 비타민과 홍삼류 등이 주류를 이룬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도 많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어떤 부분을 더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지 분석하여 이것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한 후에 효능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사는 여정동안 무수한 선택이 존재한다. 이들은 우연과 필연으로 엮어져 있다. 우리의 태어남부터 보자. 이는 우연일수도 있지만 신의 축복으로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생각, 행동 그리고 수많은 만남도 우연일 수 있지만 결국 일정한 질서 속에서의 필연이라고 여겨진다. 우리의 죽음 또한 필연이지만 죽는 시간과 방법은 우연일 수 있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우연과 필연은 상호 공존하면서도 우연 속에 필연이 있고 필연 속에 우연이 존재하게 된다.

아름답게 늙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모든 이의 꿈이다. 1954년 “먼데서 온 손님들”로 일본의 아쿠타가와상 후보가 된 소노 아야코 작가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한 지혜서”라는 책을 1975년에 발간하여 많은 이들에게 아름답게 늙는 지혜를 제시하여 지금도 우리들에게 와닿는 부분이 많아 여기에 간략히 소개한다.

1. 엄격함에 의한 자기 구제

- 남이 나를 보살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 나이 먹은 노인이라고 해서 남이 베푸는 호의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 자기의 생애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소설의 줄거리가 될 정도로 극적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 자기 삶의 방향을 확고히 하고 또 남의 삶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비판하지 말고 남의 인생을 인정할 것.
- 닳두리를 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닳두리를 하면 할수록 자기 스스로가 비참해진다.
-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먼저 체념할 것.

- 무슨 일이든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애쓸 것. 자신을 계속 단련시킬 것.
- 나이가 들면 몸조심을 하고 몸을 아껴야 하지만 젊어서 보다 더욱 몸을 골고루 쓰도록 해야 한다.
- 젊음을 시기하지 말 것. 젊은 사람들의 체면을 세워 줄 것.
- 같은 연령층과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노후를 충실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 일반적으로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말 것.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른다고 한번은 생각해 보라.
- 즐거움을 얻으려면 돈 쓸 생각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돈도 체력도 신경쓰지 않은 채로 즐거움이 생길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 자식들이 걱정을 끼치지 않는다고 맘을 느슨히 가지지 말라. 자식이 걱정을 끼치면 오히려 감사하라.

2. 생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 가끔씩 혼자 지내는 버릇을 기를 것.
- 손자를 잘 봐주자. 그리고 공치사 하지 말자.
- 나이 먹은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야 한다. 감사의 표현이 있는 곳에는 어떠한 비참한 경우라도 밝은 빛이 비친다.
- 남에게 일을 시킬 때는 간섭하지 말 것.
- 노인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실패의 핑계로 삼지 말라.
- 무엇이든 잘 잊어버리는 건망증, 팔다리의 부자유등에 대해 일일이 변명하지 마라.
- 자신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건강기구, 약 등을 함부로 남에게 권하지 말라.
- 새로운 기기의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배울 것. 이것도 노화의 척도를 심리적으로 가늠하는 길이다.
- 구취 체취에 마음을 쓸 것. 소위 늙은이 냄새라는 것이 있다. 향수 한 병이라도 늘 준비해 두고 극히 적은 양을 쓰면 된다.
- 나이가 많아지면 불결한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 흔하게 된다. 잘 씻을 것.
- 무엇이든 탐내지 말 것. 쓸데없는 것까지 집착하는 것은 노화의 한 징후이다.
- 건강이 좋거나 체력이나 기력이 왕성하더라도 뽐내지 말 것. 내가 건강해서 친구를 도와 줄 수 있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
- 늙어서도 걸음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다리를 단련해 둘 것. 허리는 똑바로 펴고 걸을 것.
- 운동의 필요성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크다. 노인은 대개 시간이 많으므로 매일 적당한 운동을 일과로 할 것.

3. 죽음과 친해지자

- 젊어서부터 즐거웠던 일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이만큼 재미있는 인생을 살았으므로 이제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결산을 해두는 습관을 평소에 연습하자.
- 늙음과 죽음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생각할 것.
- 유언장이 필요하면 스스로 편안한 마음으로 써 볼 것.
- 늙는데 대하여 자연스러울 것. 젊게 보이려 하는 것은 보기 흉하다. 늙는다는 것을 끝까지 확인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워진다.
- 때로는 찾아오는 친척들보다 매일 소중하게 보살펴주는 남, 즉 주위의 사람들에게 더 감사해라. 함께 살지 않는 둘째 며느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동거하는 며느리를 허술하게 대하지 말 것.
- 돈이 없으면 객사를 각오해라.
- 종교에 대해서도 마음과 시간을 쓸 것.
- 노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중대한 역할은 모든 이와의 화해다.
- 후덕한 늙은이가 되자.

이미 본인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아직은 본인이 젊지만 자기의 노년을 생각해보는 분이나 모두들 어차피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노년, 질병 그리고 죽음까지 어떻게 자기의 건강상태와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슬기롭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진정 아름답게 늙어가는 지혜가 아닐까. 📖

세기의 불로초

1. 적당한 운동 : 숨가쁜 정도의 운동을 30분 정도(다리는 제2의 심장)
2. 비타민 / 항산화제 : 비타민 B, C, D, E 항산화제(녹차, 과일, 색깔있는 채소)
3. 혈관기능강화 : 혈액순환개선과 혈관기능유지, 오메가 3,6,9
4. 면역기능 강화 : 대장은 제2의 뇌, 양질의 식이섭유, 하루 1.5L 이상의 물,
비만, 음주, 흡연, 염분조절
5. 소식 : 1,700~2,000 Kcal 정도
6. 스트레스 해소 : 낙천적 사고, 명상, 취미생활, 적극적 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과정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윤 용 희

대구향토시민대학원 원장
전 경북대사회과학대학장

미국 헌법제정과 연방 창설의 지도자들은 연방의 정치체계(정치제도)를 만들 때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다. 어떤 법과 제도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전제 위에 국가 권력의 분권과 상호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권력이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며 헌법과 정치체계를 창안해 갔던 것이다.

정치적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각주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창안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많은 의견 교환과 토론과 타협을 통해 행정부는 그 당시 세상에는 없었던 대통령제와 대통령 선출은 선거인단이 한다는 선거인단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고안했다. 의회는 상·하 양원제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대통령과 상·하 양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며 그들에게 어떻게 권한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주들 간에 또는 정치지도자들 간에 의견 대립이 심각했다. 큰 주를 대표하는 버지니아주안은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하고 의원은 인구비례로 배분하자고 하고, 작은 주를 대표하는 뉴저지주안은 단원제로 하며 모든 주가 동등하게 의원을 배정하자고 제안하였다. 큰

주와 작은 주간에 의견대립이 심각하자 중간 크기의 코네티컷주가 중재안으로써 의회는 양원제로 하되 하원은 각주의 인구비례로 의원을 배정하여 큰 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원 의원은 모든 주에 2명씩 동등하게 배정하여 작은 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

대통령 선출방법은 큰 주들은 자기들이 유리한 직선 제도를 주장했다. 그러나 직선제는 당시의 불편한 교통통신 사정, 낮은 국민들의 민도, 불리한 작은 주들의 반대로 직선제는 어렵고, 의회 간선제는 집행부가 의회에 종속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며 반대가 많아 채택되기 어려웠다.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과정에서 큰 주의 의견과 작은 주의 의견이 그런대로 잘 반영된 코네티컷주안의 의회 의원 선출방법이 타협이라는 장점에서 힌트를 얻어 직선과 간선을 융합하고, 큰 주와 작은 주의 의견이 반영된 각주의 상·하 양원 수만큼의 선거인단을 각 주에 배정해서 각 주 주민들은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인단들이 다시 대통령을 선거하는 새로운 선거인단 제도를 창안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코네티컷주 헌법안이 오늘날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미국 헌법 제2조 5항에 대통령 후보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14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시민으로 35세라는 피선거권 자격과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간단하게 규정만 있다. 그 외는 각 주법에 따라 다양하게 대통령 선거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의 연방제원리와 분권과 자치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미국 대통령선거도 분권과 자치 원리에 의해서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는 큰 틀 몇 가지만 관장하고, 선거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주별로 주법과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 당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이라는 한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51개 국가(50개주와 워싱턴 D.C)의 대통령 선거를 각각해서 연방정부는 전국의 선거인단을 합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방법이 다단계적이고 복잡하다.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는 연방과 각 주에 자동 모두 등록 하지만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는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에 각 주별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후보 등록 마감일도 주 별로 다르고, 후보자 추천 인원도 주 별로 몇 백명에서 몇 만명까지 다양하고, 정·부통령 런닝메이트를 요구하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다. 선거방법도 직접투표, 사전투표, 잠정투표, 우주투표, 부재자투표 등 다 있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다. 투표시 기표방법도 각 주에 따라 전자 기표, 광학용 기표, 편치카드, 기계레버, 종이 기표, 자기가 후보를 자의적으로 기명하는 등 다양한 기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부터 다단계적인 미국 대통령선출과정을 단계별로 간결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가 첫째 단계라 할 수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후보가 되면 2분의 1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는 당원들이 직선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과 일반인은 예비선거(코커스와 프라이머리) 통해 전당대회 대의원 뽑고 선출된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 모여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대의원의 총수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으면 후보로 확정된다. 2016년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당대회 대의원 4,764표 중 과반수인 2,383표 이상을 득표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전당대회 대의원 2,472 중 과반수인 1,237표 이상을 득표해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 대통령후보가 결정되면 선거인단 득표를 위해서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는 총력을 다해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둘째, 주민들의 선거인단 선거 단계이다. 현재 선거인단 총 수는 50개 주 상·하 양원 535명(하원 435명, 상원 100명 만큼의 535명의 선거인단과 + 1961년부터 특별히 워싱턴 D.C에 선거인단 3명이 배정이 되어, 총 선거인단은 538명이다. 각 대통령 후보들은 이 선거인단을 과반 수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6년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일은 11월 8일에 각주에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수만큼 민주당과 공화당은 선거인단 후보를 내고 주민들은 선거인단 개별 후보에게 따로 따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 선거인단 전체를 두고 공화당 선거인단 후보에게 투표하던지, 아니면 민주당 선거인단 후보에게 투표하던지해서 그 주에서 전체주민들의 1표라도 지지를 더 받은 선거인단(대통령 후보)은 모두 당선되고 나머지 선거인단은 모두 낙선하는 승자독점 당선결정방법을 택하고 있다. 대통령후보와 선거인단 후보의 당선이 주민들의 득표 비율대로 선거인단을 배정하지 않고 승자가 독점하는 당선 방법을 48개주와 워싱턴 D.C가 채택하고 있다. 다만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는 상원 몫 2표는 주 전체에서 승자독점 그리고 하원 몫의 선거인단은 각 하원 선거구별로 1표라도 이기는 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혼합 당선 결정 방법을 택하고 있다.

선거인단의 선거결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전체 국민지지표 62,979,636표(46.1%), 전체 선거인단 538표 중 306표를 획득하고 과반수인 270표를 넘어섰기 때문에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국민전체 지지표 65,844,610표(48.2%), 전체 선거인단 538표 중 232표 획득하였지만 선거인단 과반수 득표 실패로 낙선하였다. 트럼프 후보는 30개주에서 승리하였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20개주와 워싱턴 D.C에서 승리했다. 힐러리 후보가 국민전체 투표에서는 2,864,974표 이겼으면서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76표나 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경우는 1824년, 1876년, 1888년, 2000년, 2016년 대선까지 5회나 있었다.

세번째, 선거인단의 대통령선거단계이다. 2016년 미국 선거인단 당선자의 대통령 선거일은 12월 19일 실시되었다.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거한 결과는 트럼프 304표(2표 이탈), 힐러리 클린턴 227표(5표 이탈)로 트럼프가 최종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선거인단 7표의 이탈 표가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 이 이탈표 때문에 대통령 당락이 뒤바뀌는 현상이 언젠가는 일

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

네번째, 의회에서 정·부통령을 선출하는 단계이다. 대통령 당선은 선거인단 총 수의 과반수인 270표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만약 과반수 당선자가 없으면 대통령은 하원에서 부통령은 상원에서 선출한다. 하원에서 대통령 선거는 하원 각자 1표씩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가 주 단위로 동등하게 1표씩만 행사해 50개 주 중 26개 주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상원의 부통령선거는 상원 100명이 각자 1표씩 투표권을 행사해 51표를 득표한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된다.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거해 당선된 사례는 3대 토마스 제퍼슨, 6대 존 퀸시 애덤스, 19대 러더퍼드 헤이스 3명이며, 부통령 선거는 없었다.

대통령 재임 중 유고가 발생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데 현재까지 9명이나 된다. 그런데 38대 포드 대통령은 애그뉴 부통령 사임으로 부통령에 지명되고 그 1년 후 닉슨 대통령이 워트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자 대통령직을 계승하여 한 번도 주민의 선거를 통하지 않고 부통령과 대통령이 된 유일한 사람이다. 부자 대통령은 애덤스(2대, 6대), 부시(41대와 43대) 2번 있었다. 한번 대통령하고 낙선했다가 재당선된 대통령은 22대와 24대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한 사람 뿐이다. 미국의 대통령 대수는 재선-4선되어도 대수가 올라가지 않고 대통령이 바뀌어야 대수가 올라간다, 다만 클리리블랜드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대수가 올라간다. 따라서 한사람만 2대 올라갔기 때문에 대수(45대)에서-1빼면 미국 대통령 숫자(44명)가 된다.

미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순조롭게 정착, 발전시켜온 전형적인 대통령제 중심 국가이다. 또한 세계 최고의 선진 민주정치 국가로써 군사대국이자, 경제대국이다. 미국 헌법 제정과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가 시작된 지 이제 230년이나 되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전면적인 헌법 개정도 없었고, 대통령 선거제도도 전면적으로 고치지 않고 부분적인 개정과 변화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선거경험과 대통령제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미국에서 한국은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 자문자답해 보아야할 시점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과정이 다단계적이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비민주적이고 불편한 요소도 있다. 그러나 복잡하지만 민주적인 여러 단계의 주민들의 선거과정을 통해 대통령 후보들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인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민주적인 선거과정으로 훌륭하게 정착시켜 온 미국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의 지혜와 경험에서 우리 국민과 지도자들이 좋은 교훈을 얻어야할 것이다. 유기체도 고등동물일수록 복잡하면서 정교한 구조와 조직으로 되어 있고, 고성능의 기계도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 되어있는 것과 같이 정치체제도 선진정치체제수록 복잡하고 정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은 대선 때마다 대통령 선거제도와 규정 관계로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정파 간에 갈등과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한국은 9회의 전면적인 개헌과 18회의 대통령 선거법과 제도를 만들고 고치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왔지만 아직도 만

즉할 만한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또다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제도와 선거방법을 고쳐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제 경험을 통해 볼 때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 사람들과 정치지도자들에게 문제가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국민들과 지도자들은 법과 제도가 즉각적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면 법과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쉽게 법과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다시 만들거나 뜯어 고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잘못된 오늘의 우리 정치현실이 우리의 대통령 제도와 대통령 선거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의 잘못된 선거인식과 태도에 있다는 점은 전연 깨닫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불평 없이 잘 가꾸고 정착, 발전시키고 있는 미국 국민들과 정치지도자들의 인내심과 훌륭한 선거전통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처럼 개인과 정파들이 자기들이 권력 잡고 유지하기에 유리하도록 헌법과 대통령 선거 방법을 누더기처럼 찢고 엮어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제도와 대통령선거법을 고치려하기 전에 먼저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이 과거와 현재 정치에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로부터 출발해야 법과 제도와 현실정치가 정도로 정착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할 때 대통령 후보자 정당의 정강정책과 선거공약 그리고 리더십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 학연 혈연을 연결고리로 투표하면서 정치의 잘못은 법과 제도와 타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나쁜 선거의식과 정치문화의 전통이 전례 되고 있다. 정치의식과 제도를 함께 고쳐야지 나쁜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과 제도를 아무리 고쳐도 정치발전과 선거문화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전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전 유신학원(대구예술대학교) 이사장,
대구경북 명예교수회 회장

2017 하반기 2·28인문학 강좌 개최(제30~32차)

하반기 2·28인문학 강좌가 지난 11월 21일(화), 22일(수), 23일(목) 3일에 걸쳐 본회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임에도 2·28회원과 시민 50여 명이 매회 강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였고,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내용에 매 강의마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강의시간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의시간	내용	강사	프로필
11월 21일(화) 14:00~16:00 (2시간)	자주, 민주, 창조 의 도시 대구	이 효 수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전 영남대총장
11월 22일(수) 14:00~16:00 (2시간)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과 죽음	이 상 흔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전 경북대학병원장
11월 23일(목) 14:00~16:00 (2시간)	미국대통령 선거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윤 용 희	대구향토시민대학원 원장 전 경북대사회과학대학장



2·28차세대 주역 워크숍 개최

2·28시민정신확산 사업의 일환인 시민캠프(차세대주역 워크숍) 제3차, 4차 행사가 지난 11월 23일(목)과 11월 24일(금) 연이어 개최되었다.

제3차 워크숍은 대구상원고 총 동창회 각 기별간부 39명이 수성구 소재 한 식당에서, 제4차 워크숍은 대구공고 총동문회 각 기별간부 및 관계자 21명이 본회 기념회관 회의실에서 행사를 가졌다.

지난 7월(경북고)과 9월(대구고)에 이은 이 행사에서도 2·28의 사업과 회원현황, 장래 비전 제시 등에 이어 주역 선배의 당시상황 특강과 당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28민주운동 역사문화 RPG

-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는가 -

지난 11월 25일(토) 2·28기념중앙공원 등 시내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252명이 67팀을 이뤄 2·28민주운동 관련 장소에서 역사문화 RPG를 시행하였다.

결그룹(S2U)의 축하공연과 노동일 공동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역사문화 RPG 참가자들은 나눠준 지도에 표시되어있는 장소에서 미션을 수행하여 점수를 받고, 최종미션을 완료한 뒤 최종 합산하여 우승팀을 가렸다.

이날 1등은 '교룰교룰' 팀, 2등 '문송김쥐' 팀, 3등 '동의어보감' 팀, '김동희' 팀으로 총 상금 100만원이 주어졌다. 아쉽게 순위에 들지 못한 팀들을 위한 특별이벤트로 단체 사진을 재밌게 찍어 보낸 팀에서 5팀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도 전달했다.

이번 역사문화 RPG 참가자 대부분이 10·20대로 평소 알지 못했던 2·28민주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재미있게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 RPG(를 플레이 게임 role playing game 의 약어)



2017년도 제5차 이사회 개최



지난 12월 13일(수) 오후 2시 2017년도 제5차 이사회가 본회 기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정회원의 가입승인과 내년부터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을 수탁관리하게 됨에 따른 제규정 제정 및 내년도 정회원의 연회비 부담액 결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범시민위원회 행안부 방문, 청원서·100만인 서명부 전달



제56주년(2016년) 2·28민주운동기념식에서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을 선언한 이후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공동위원장 : 노동일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의장, 진영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지난 9월 28일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국가기념일 지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10월 11일(수) 오전 11시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청원서 및 100만인 서명부를 김부겸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 올의 실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NevurN[®]



삼일방직 네번은 특허등록된 난연성 원단으로 원사에서 제직, 염색, 가공까지 일관생산체계를 갖추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번 원단은 산업현장 및 캠핑 등 레저생활을 위한 아웃도어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성 화재, 전기아크 등의 위험에 대응하는 잘 타지 않고 녹지 않는 영구적인 난연기능의 소재입니다. 뛰어난 열·화상 방어력과 마모 저항성, 내구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정전기 발생을 차단하고 셀룰로오스계 섬유를 함유하여 편안한 착용감과 인체 친화적입니다. 밝은 색상으로 쉽게 염색이 가능해 산업 안전복, 보호복은 물론 레저용 패션의류 제작이 가능합니다.

 삼일방직주식회사

본사·공장: 경북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539 전화: 053)810-7255 팩스: 053)817-3139

비산 공장: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 11길 56

서울영업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8층 전화: 02)528-4431

www.samil-sp.co.kr

iM뱅크

생활속에 나만의 은행

by DGB대구은행 



은행 갈 시간이 어땀어? 아이엠뱅크 해!



Do enjoy your life

지혜로운 생활



Good shopping service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Best family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